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Toilet문화의 사적 고찰을 통한 Toilet Bar
Service 제안연구

2016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홍희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Toilet문화의 사적 고찰을 통한 Toilet Bar Service 제안연구

The research proposal for toilet bar service through historical site of
toilet culture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홍희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Toilet문화의 사적 고찰을 통한 Toilet Bar Service 제안연구

The research proposal for toilet bar service though hiatorical site of
toilet culture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홍희정

홍희정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Toilet문화의 사적 고찰을 통한 Toilet Bar Service 제안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홍 희 정

본 연구는 동·서양의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토일렛 문화사를 문화사적 고찰을 통해 역사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토일렛의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주고, 동·서양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토일렛을 살펴보았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토일렛 문화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욕구와 목적에 따라 기능과 형태가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러나라의 토일렛 문화의 교류와 교차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문화적 영향으로 토일렛 문화 또한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 하게 되었다. 토일렛은 단순히 배변만 하는 곳이 아닌 미용과 사회, 경제, 종교, 정치적인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대에서부터 근·현대적 변화 과정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인류가 생기면서 부터 인간의 욕구에 의해 토일렛 문화가 생겨났으며 고대 로마시대에는 가장 발달된 형태의 공중토일렛이 존재했다.

중세에는 종교와 정치적 이유로 토일렛이 전체적으로 퇴보 양상을 거쳤으며, 도시의 위생 또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주문에 의해 여왕의 대자였던 존 해링턴이 수세식 좌변기를 고안

해 첫 등장하였으며 토일렛 문화는 진보와 퇴보를 거듭하면서 지금의 형태에 이르렀음을 서적, 선행논문, 보도자료, 인터넷 자료, 사전, 문헌고찰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현대에는 토일렛 공간의 개념이 폭넓게 확장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과 토일렛 설비 또한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의 토일렛은 인간과 기능과의 조화를 이루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면서 컴퓨터의 기능을 토일렛에 접목한 사물인터넷도 발전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에 기록된 토일렛의 의미는 시대적, 문화적,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토일렛은 그 자체의 명칭만으로도 가치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토일렛은 미의 기능과 배변의 기능, 청결의 의미와 더불어 인간의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욕구 만족과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인식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과거의 불결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분리 되었던 면이 현재에는 위생적인 부분이 해결 되면서 실내공간에서 없어서 안 될 부분이 되었다. 토일렛은 근래의 모습으로 갖춰지면서 이를테면, 미적 활동이나 생활 업무와 드레스룸, 바스룸, 쉬는 공간, 메이크업 공간 등을 포함하게 되어 토일렛 공간에서의 활동을 가능 하게 하였다. 또한 컴퓨터가 융합 된 토일렛 공간은 개인적인 취향까지 세심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건강, 휴식 등 멋진 노후를 위한 100세 시대(home-hundred Generation)도 추가 되어 한결 편리함이 강화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체계가 바뀌는 걸 통해 토일렛 공간도 다양한 형태로 재편 되었다.

이상과 같이 토일렛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을 통해 현재의 토일렛을 한 단계 발전시켜 인간과 기능과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의 토일렛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삶과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토일렛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며 현재의 토일렛은 한 단계 발전된 인간과 기능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가기 전 간단히 토일렛을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로 인해 씻을 수 있으면서 메이크업과 에스 테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인 토일렛을 이용할 공간을 제시 했다.

본 연구에서는 토일렛 문화사적 고찰을 통해 현대인들이 받게 될 서비스로서, 토일렛 바를 제시하여 다양한 욕구와 목적에 맞게 과거의 지혜와 경험으로 나온 문화사적 결과물을 바탕으로, 뷰티 서비스와 접목하여 1900년대 초 헬레나루빈스타인(Helena RUBINSTEIN 1870. 12. 25~1965. 4. 1)과 엘리자베스아덴(Elizabeth ARDEN, 1878. 12. 31~1966. 10. 18)의 뷰티살롱을 모티브로한 토일렛 바 에스테틱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안 하였다. 앞으로 토일렛 바에 대한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되리라 사료되며, 뷰티 에스테틱 서비스로 제안하였다.



【주요어】 토일렛 바, 토일렛 문화, 미용 서비스, 뷰티살롱, 뷰티 에스테틱, 미, 뷰티, 변기, 토일렛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내용	3
II. 토일렛(toilet)문화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통한 유형 분류	4
2.1 토일렛 문화의 역사적 변천과정	4
2.1.1 토일렛 문화의 기원	4
2.1.2 유럽의 토일렛 문화	9
2.1.3 아시아의 토일렛 문화	22
2.2 토일렛 개념 및 인식의 변화	31
2.2.1 토일렛의 의미	31
2.2.2 토일렛의 유래	32
2.3 한국의 토일렛 문화사적 특성	33
2.4 토일렛 유형적 특성	40
2.4.1 습식토일렛	40
2.4.2 건식토일렛	43
2.4.3 절충형토일렛	46
III. 근·현대 사회속의 토일렛 문화 트렌드	48
3.1 근대 사회속의 토일렛 개념의 변화	48
3.2 현대 사회속의 토일렛 개념의 변화	53
3.2.1 토일렛 공간의 흐름의 변화	55

3.2.2 토일렛 공간의 문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55
3.2.3 토일렛 문화의 디지털 화에 따른 사물인터넷 연계	55
3.2.4 토일렛 공간의 독특한 개인의 특색 적용	58

IV. 토일렛 바의 서비스 프로그램 제안연구 59

4.1 토일렛 바의 정의와 역할	59
4.1.1 토일렛 바의 정의	59
4.1.2 토일렛 바의 역할	60
4.1.3 토일렛 바의 모티브 헬레나루빈스타인과 엘리자베스아덴	61
4.2 웬디의 콤피 토일렛바 서비스 프로그램 매뉴얼 서비스	72
4.2.1 페이스셜 서비스	72
4.2.2 메이크업 서비스	80
4.2.3 물을 이용한 하이드로테라피와 바디랩 서비스	83
4.2.4 브로우바 서비스	86
4.2.5 스킨케어 서비스	90
4.3 웬디의 콤피 토일렛 바 서비스 프로그램 매뉴얼 서비스	102

V. 결론 및 제언 107

5.1 결론	107
5.2 제언	110

참고문헌 111

ABSTRACT 114

표 목 차

<표 1> 유럽의 요강	21
<표 2> 시공 과정에 따른 토일렛 구분	45
<표 3>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토일렛 구분	45
<표 4> 토일렛 공간 개념의 변화	53
<표 5> 토일렛 공간의 기능 항목	54
<표 6> 클렌징	78
<표 7> 딥클렌징	76
<표 8> 마사지	78
<표 9> 마스크	80
<표 10> 웬디의 콤피 토일렛 바 기본 프로그램 매뉴얼	83
<표 11> 눈썹 모양에 따른 눈썹이미지	89
<표 12> 브로우 왁싱 방법	90
<표 13> 스웨디쉬 마사지	94
<표 14> 경락 마사지	97
<표 15> 스포츠마사지의 기본원칙	99
<표 16> 스포츠마사지	100
<표 17> 발마사지	102
<표 18> 웬디의 콤피 토일렛 바 이용 시간에 따른 프로그램	103
<표 19> 웬디의 콤피 토일렛 바 스페셜 케어 서비스	104
<표 20> 웬디의 콤피 토일렛 바 스페셜 케어 서비스	105
<표 21> 웬디의 콤피 건식 스페셜 케어 서비스	106
<표 22> 웬디의 콤피 습식 스페셜 케어 서비스	107

그림 목 차

<그림 1> 고대이집트의 화장실 스푼	5
<그림 2> 이집트왕의 토일렛	7
<그림 3> 고대 코린트의 토일렛	8
<그림 4> 고대 그리스 토일렛	9
<그림 5> 로마의 화장실 상자	10
<그림 6> 로마의 공중토일렛	11
<그림 7> 에페소 공중토일렛	11
<그림 8> 로마의 수세식 공중토일렛 구조	12
<그림 9> 공중토일렛의 구조 모형도	12
<그림 10> 로마의 공중토일렛	13
<그림 11> 로마의 대수로시설 클로아카막시마	13
<그림 12> 지금도 수로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클로아카막시마	14
<그림 13> 클로아카막시마의 관의 모습	14
<그림 14> 납 파이프	15
<그림 15> 클로아카막시마	15
<그림 16> 성벽주변의 해자와 성벽 토일렛	16
<그림 17> 왼쪽 성벽 토일렛,오른쪽 토일렛의 밑을 내려다본 모습	16
<그림 18> 도시의 풍경	17
<그림 19> 귀부인이 서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모습	18
<그림 20> 도시의 토일렛 풍경	19
<그림 21> 유럽 상류층의 토일렛	20
<그림 22> 루이 13세의 변기, 루이 14세의 변기(Louis XIV's Toilet)	21
<그림 23> 오스트리아의 변기	21
<그림 24> 중국의 요강 호자	23
<그림 25> 호자와 마통	24
<그림 26> 중국의 고대 변소 모형	24
<그림 27> 대자연 순환을 하는 인도의 화장실	28

<그림 28> 일본의 수병	29
<그림 29> 백제 화장실	34
<그림 30> 백제시대 휴대용 호자	35
<그림 31> 조선시대 왕이 쓰던 매화틀(위), 매화그릇(아래).	36
<그림 32> 습식토일렛	41
<그림 33> 습식토일렛	42
<그림 34> 습식토일렛	42
<그림 35> 건식토일렛	44
<그림 36> 건식토일렛	44
<그림 37> 절충형토일렛	46
<그림 38> 절충형토일렛	47
<그림 39> 절충형토일렛	47
<그림 40> 세계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	49
<그림 41> 윌리엄 호가스 삽화 요강비우기	50
<그림 42> 알렉산더 커밍의 새로운 발명품	51
<그림 43> 미래 토일렛	57
<그림 44> 미래 토일렛	58
<그림 45> 피부 분석기	62
<그림 46> 폴라로이드기에 의한 피부분석 1937년	63
<그림 47> 자외선 장치	63
<그림 48> 메이크업	64
<그림 49> 관리모습	64
<그림 50> 슬리밍 관리	65
<그림 51> 두피 관리	65
<그림 52> 태양 목욕	66
<그림 53> 목욕관리	66
<그림 54> 레드도어 살롱	70
<그림 55> 엘리자베스 아텐의 뷰티살롱	71
<그림 56> 스크립을 이용한 관리	74

<그림 57> 딥클렌징 관리	74
<그림 58> 안면 마사지	76
<그림 59> 안면 마스크	78
<그림 60> 1. 메이크업샷의 내부	81
<그림 61> 2. 메이크업샷 내부	81
<그림 62> 3. 메이크업샷 내부	81
<그림 63> 하이드로테라피 기기	83
<그림 64> 하이드로테라피 관리	84
<그림 65> 하이드로테라피 이미지	84
<그림 66> 바디랩 서비스	85
<그림 67> 2003년 베네피트 브로우바	87
<그림 68> 베네피트 브로우바 매장모습	87
<그림 69> 스파서비스	91
<그림 70>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91
<그림 71> 아로마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94
<그림 72> 등경락마사지	95
<그림 73> 안면림프드레나주 이미지사진	97
<그림 74> 안면림프드레나주 이미지사진	97
<그림 75> 발관리 이미지	100
<그림 76> 발의 혈자리	100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인류가 시작된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변욕’이라는 인간의 욕구는 토일렛이란 문화를 탄생 시켰다. 토일렛은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인간이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미를 가꾸는 시작점인 장소이며, 미가 마무리 되는 장소로서, 지금까지도 인간이면 피해갈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장소이다.

토일렛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배변의 욕구를 해소 하는 장소로서의 한 가지 목적으로 일반화된 특성뿐 아니라 토일렛은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 보다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인류가 시작되고 문화와 경제가 발전을 거듭하고 일상의 삶과 질이 향상되어 가면 갈수록 토일렛의 기능은 더욱 합리적이고 편리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면과 맞물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토일렛은 근·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의 습식형태의 토일렛이 서양의 건식형태의 토일렛을 만나 습식형태와 건식형태의 토일렛을 접목한 절충형토일렛 형태의 토일렛으로 발전 하고 있으며, 드레스 룸, 쉬는 공간의 개념인 거실, 콘솔, 변기, 세면대, 욕조 등 다기능 적인 공간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루 일과 중 제일 먼저 시작함과 동시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토일렛은 자신을 위해 설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시간, 때, 장소에 맞게 알리거나 상품화 시키고, 직위, 직급, 신분 표현과, 가치관,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을 한 단계 높이는데 미를 표현 하는 장소로서 기능적인 선택이 필요한 공간이며 토일렛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공간이다.

생활양식의 변화는 건강, 휴식, 로하스, 웰빙, 웰리스, 100세 시대의 노후를 위한 휴식과 미의 공간으로서 토일렛의 기능을 다각화 했다. 단순 생리현상과 위생의 공간으로서의 토일렛이 점차 심리적·정신적으로 휴식과 힐링의 개념이며 건강·미의 개념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다기능화 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생활양식의 변화는 현대 아름다움의 미에 대한 욕구도 다변화, 다각화시켜 놓았다. 이러한 특성은 보다 특별한 자기만의 색깔 표현, 가치관과 삶을 대하는 방식을 미와 함께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게 한다. 자신만의 고유한 미를 표현 하고 시간, 장소, 목적에 맞는 미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토일렛은 통합된 미의 요소로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 한다.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취득하고, 자기만의 미의 방법을 찾고, 자기화 하는데 수많은 기로에서, 인간의 감성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성적 프라이버시가 극도로 요구되는, 토일렛 공간의 개인적 특성을 지닌 토일렛을 통해 개인의 욕구에 맞는 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토일렛 바¹⁾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안하여 정신적·육체적 안녕과 사회에서 자신에게 맞는 색깔과 외형적·내면적으로 완성된 이미지메이킹을 하여 경쟁 사회 속에서 전략적으로 취업과 성과를 내며 사회적으로 성취도를 높이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대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권의 흥미로운 토일렛 문화사를 문화사적 고찰을 통해 고대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 나타난 노력과 방법들을 토대로, 과거의 지혜를 토일렛 바라는 공간을 제시해 봄으로서, 토일렛 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안 연구 하여 토일렛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토대로 토일렛을 통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일렛 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안 하고자 한다.

1) 토일렛 바(Toilet bar) 본 연구과정에서 발생된 신 용어 임

1.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토일렛에 관한 역사와 문화사적 고찰을 통해 시대와 지역적 토일렛 문화 속에 표현 되어진 토일렛을 알아봄으로써, 토일렛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루어 주고 그 속에 표현 되어진 토일렛에 대한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현대 생활 속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토일렛 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토일렛에 대한 문화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국내·외 선행 논문, 전문서적, 패션잡지, 신문, 사전,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알아보고 역사 속 서양과 아시아, 한국의 문화사적 특성을 토대로 토일렛의 의미와 토일렛의 유래를 알아봄으로써 토일렛의 시대적 배경과 토일렛 문화를 문헌 연구 방법으로 고찰하여 역사 속에 나타난 토일렛에 대한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근·현대 사회속의 토일렛 문화 트렌드를 분석하여 토일렛 바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해 제시할 분류 및 구성에 대해 조사 하고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토일렛 바의 정의와 역할을 제안하고 역사 속에 기록 되어진 토일렛을 적용하여 토일렛 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안 한다.

5장에서는 이상의 토일렛 바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토일렛 바의 연구의 의의와 목적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II. 토일렛(toilet)문화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통한 유형 분류

2.1 토일렛 문화의 역사적 변천과정

2.1.1 토일렛 문화의 기원

최초의 토일렛에 대한 유적이거나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간의 기본욕구에 대한 연구와 고고학의 개념을 통해 대략적인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배설을 위한 단순한 방법을 채택했을 것이다(박승조, 1997).

최초의 토일렛 유적으로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사대 문명이 시작된 황허강, 나일 강,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인더스 강이 있는 인간의 살기에 적합한 강가에서 인간의 생리적 배설 행위에 대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기원전 2800년경 스코틀랜드 오크니제도에서는 신석기시대의 간단한 수로 시설들이 발견되었는데 튼튼한 돌담이 집과 집 사이에 연결되었으며 그 안에 배수구와 통하는 곳은 유럽이나 중동의 건축에서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장식을 만들어 넣었으며 두꺼운 벽면을 파서 움푹한 형태로 만들어 졌다(김광언, 2002). 오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관과 관이 연결된 파이프가 수로 시설이 있었던 수세식 토일렛은 고대 인도의 인더스 강 계곡과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었다. 기원전 3000년대 중반 인더스 강 유역의 온화한 기후에 조직화된 지배 계층이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인더스 문명의 규모는 길이가 약 3천 2백 킬로미터가 넘는다. 사대문명의 발생지인 중국의 황허 강, 이집트의 나일 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처럼 인더스문명 역시 고도의 발달한 문명을 향유한 사실이 유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기원전 2500년에서 1400년경 모헨조다로(Mohenjo daro)는 파키스탄 남부 수도의 카라치 북북동 300킬로미터, 인더스문명 최대의 도시유적으로 서쪽에는 성새가 있었으며 높이 쌓아올린 인공 언덕으로 그 규모가 자그마치 동서

200미터 남북 400미터 높이 15미터나 되었으며 동쪽에는 당시의 시가지구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계획 지구였다. 성내 안에는 배수설비도 완비되어 흙으로 된 방수 처리한 파이프를 통해서 하수구로 흐른 다음 수채 구멍으로 흐른 물은 대로의 배수로 흘러나온다(백승우, 2003). 물은 방수 처리한 관을 통해 인더스 강에서 끌어다 썼다. 유적에는 물을 담아 놓은 큰 통이 있었는데 세로 12미터, 가로 7미터의 공중목욕탕 초기형태이다. 시가지구에 있는 가옥들은 벽을 파 욕실과 토일렛을 설치했다. 최초의 의자 토일렛은 기원전 2500년경 오크니제도 보다 조금 늦게 건축된 것이다. 의자식 토일렛은 벽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얹었다. 토일렛 밑으로 직선 배수구가 연결되어 배설물은 배수구를 통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다. 식수가 위생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 오염되지 않게 고안 했으며 주변을 고려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고 계산해 내는 기술적인 면도 발달 되었다. 인더스 문명의 중심 도시가 있던 인도의 모헨다조(Mohenjodaro, B.C 3000~1500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세식 토일렛 유적이 발견되었다. 기원전 1700년경에 도자기로 된 변을 받는 요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물과 나무로 만든 수세식 토일렛이 지중해 미노아 문화의 중심지 지금의 크레타 섬에서 발굴 되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 수세식 토일렛이 발견 되었으며 배설물이 물을 통해 모래가 있는 땅으로 가게 하는 형태의 수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림 1> 고대이집트의 화장실 스푼

출처: Richard Corson, 2003

고대 이집트에는 각 도시에서 실내 토일렛이 사용 되었으며 이집트의 상류층이 것으로 추정 되는 <그림 1>과 같은 상아로 된 이집트의 화장실 스푼과 화장실 상자들이 발견되었다. 그 물건들은 기원전 1370~1340년의 것으로 상아로 된 메뚜기가 비현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눈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몸 에 작은 와동을 드러내는 날개부위를 그려 넣었다. 매우 고급스러운 물품으로 2.5인치 길이로 부르클린 박물관에 소장 되어있다(Richard Corson, 2003).

1919년에 유프라테스강 하류에서 발견된 개인주택의 수세식 토일렛을 인류 최초의 토일렛으로 아카드 왕 사르곤(Sargon of Akkad, B.C 2350~2150 재위)때의 것이다. 앗수르 왕 사르곤 2세(Sargon II, B.C 721~705년)이 궁전에는 6개의 토일렛이 있었고 좌식 토일렛이 설치되었다.

아시리아 인들은 발달 된 형태의 토일렛을 사용했다. 기원전 7세기에 살았던 앗수르바니팔(Assurbanipal, B.C. 669~626)왕은 글을 읽고 기록할 수 있는 왕으로 10만권의 점토판을 소장한 도서관을 갖고 있었으며 출토 문서 2만여 권이 대영박물관에 소장 되어 토일렛에 대한 기록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Richard Corson, 2003).

현 지도상 서아시아의 텔 아스마르(Tell Asmar) 고대명 에슈nun나(Eshnunna) 기원전 2400년 전 벽돌로 만든 일곱 개의 좌변기들이 북쪽 궁전에서 발굴되었다. 그곳은 상류 계층이 사용하던 공중토일렛으로 나란히 변기들이 놓여 있었다. 변기 밑에는 하수파이프가 있어 물이 흐르며, 관은 변기마다 연결 되어 하수관을 통하고 있다. 상류층만을 위한 것으로 서민들이 사는 집에는 토일렛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하수도 시설이 있는 집도 없었다.

그리스의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Herodotos, B.C 484~425)는 여행하면서 이집트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목격 그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가옥 밖으로 나가 배설을 한 반면, 이집트인은 가옥 안에서 배설을 하였다고 그는 기록했다(야콥블루메, 1999). 당시 이집트의 전통의상은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공기가 잘 통하는 마직 천으로 드레이퍼리(drapery)라는 전통의상을 착용한 남성들은 앉아서 용변을 보았고 여인들은 선 채로 소변을 보며 집 안에서 용변을 보고, 식사는 집밖 거리에서 했다. 배설물이 쌓인 통속에 모래나 흙을 뿌려 냄새와 배설물의 분해를 촉진 시키는 방법을 이집트

인들은 알고 있었다. 상류층의 가옥에는 토일렛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유물은 모래를 반쯤 채운 통을 두개의 돌로 기둥을 세운 사이에 놓아두었다. 이크나톤 왕(Ikhnaton, B.C 1364~1347 재위)이 아케트아톤(Akehetaton)은 수도로 현재의 엘-아마르나에서는 석회석 좌식 토일렛에 통이 들어 있어 배설물이 차면 꺼내 비울 수 있다. 벽돌로 두 개의 기둥 위에 넓게 켜 목재를 얹어 우묵하게 파서 용변을 본 후 사용할 모래를 쌓아둔 다른 종류의 변기들도 있다(다니엘 푸러, 2005). 이집트에는 휴대용 변기가 있어 커다란 구멍이 뚫린 나무의자 밑에 나무로 된 그릇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을 받혀 쓰도록 되어 있다. 왕굴 바구니는 비교적 값이 싸으며 나무 상자나 질그릇 대신 사용되기도 했다. 지상을 흐르는 수로 시설은 신전과 왕궁, 고대 이집트의 정방형의 묘실에 있는, 기록이나 유물을 통해 발견되었다.

화장실의 작은 역사의 저자 다니엘 푸러에 의하면 크레타 섬의 미노아 사람들이 사용한 토일렛은 가장 수준 높은 위생 시설이었다.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존 에번스(John Evans, 1851~1941)경은 크노소스 궁전은 기원전 2000년 중반에 지워진 궁으로 길이 2미터, 너비 1미터 가량의 토일렛이 있었던 공간을 발견했는데 벽에는 변기가 붙어 있던 흔적이 남아 있고 바닥 아래에는 경사가 아주 심해서 물이 분노와 함께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벽에는 석고판을 발라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 이집트왕의 토일렛

출처: freakingnews.com

1960년대에 산토리니(Santorini) 고대 티라(Thera)라 불린 섬에서 고고학자들은 아크로틴이라는 마을 부근의 두터운 화산 퇴적물 아래에서 기원전 16세기경 지진과 화산 폭발로 파멸된 도시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 기원전 1600년경 엄청난 대지진과 화산 폭발로 파멸한 도시였는데 건물 외벽 확장된 곳에 수세식 토일렛을 설치한 흔적이 있었다. 이 곳에서 발견된 토일렛은 점토질 도관으로 하수와 분뇨를 모아두었다가 구덩이로 배출되거나 중앙 배수로에 보내는 수로 시설이었다. 토일렛은 단순히 작은 구멍을 뚫어놓은 형태였다. 고대 그리스(Greece) 기원전 561년에 시작된 아테네의 지배자가 국가의 권력을 장악 하던 시대에 이르러 수도관이 건설되었다.

그리스 교훈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플루타르코스(Plutarchos)는 기원전 46년에서 120년 사람으로 저서인 노동과 나날에서 샘물에 불일을 보면 안 된다고 기록해 놨다. 고대 도시국가들의 엄청난 확장으로 그리스인들은 오물과 폐물 질로 인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물음에 직면 한 것이다(다니엘 푸러, 2005). 고대 코린트(Corinth)는 기원전 44년 재건되어 번영 하였으며 521년 지진으로 쇠퇴, 1858년 지진으로 파괴 되었다. 그리스 남북육상무역의 핵심이 되는 곳인 이오니아해와 에게해를 잇는 해상무역의 핵심이 되는 곳이다.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가 쇠퇴한 헬레니즘 시대에도 상업도시로서 번성하였다. <그림 3>은 고대 코린트의 토일렛 유적이다.



<그림 3> 고대 코린트의 토일렛

출처: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

팽창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아주 지저분한 도시였다. 요강에 담긴 배설물을 창 밖에 투척이 있던 시대이기도 하다.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로 접어들면서 도시의 위생문제 인식으로 인해 배수 구덩이 대신 수로 시설을 설치고 고학자들에 의해 ‘대운하’라고 불리어 졌다. 그리스 요강은 휴대하고 다닐 수 있었으며 소아용 간이 변기도 있었다. <그림 4>는 그리스의 토일렛 유적으로 고대로마 토일렛의 영향을 받았다.



<그림 4> 고대 그리스 토일렛

출처: <http://blog.daum.net/akadmlckd/440>

2.1.2 유럽의 토일렛 문화

고대 로마는 가장 완벽한 토일렛 문화를 갖췄던 위생 국가였다(백승우, 2003). 지금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같은 1층에는 상업공간이 있고 2층부터 가정집이 있는 10층 고층 빌딩과 임대 건물이 있었다. 로마의 토일렛은 매우 화려한 모습으로 꾸며져 있는 수세식 토일렛이었다. 로마인들은 함께 용변을 보는 일들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로마의 토일렛은 대화의 장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로마인의 공동으로 용변을 보는 전통은 20세기까지 남아 있다. 이 시대에 가정의 토일렛은 네세사리아는 간단한 용변만을 볼 수 있는 토일렛이 있었으며 공중토일렛은 254개나 존재했다.



<그림 5> 로마의 화장실 상자

출처: Richard Corson, 2003

기원후 2세기 초 재정로마시대는 화려한 공중 토일렛이 등장했다. 당시 평범한 토일렛이 주를 이뤘지만 라르고 아르젠티나 광장에서 지어진 화려한 토일렛에는 50에서 60개 정도 되는 토일렛이 설치 되어 있었다.

티투스 베스파시안(Titus Flavius Vespasianus)황제는 기원후 69년에서 79년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공중토일렛 시설도 필요했다. 원형 경기장은 약 10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경기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25개의 좌식 변기가 원형으로 되어 있었다(야콥블루메, 1999).

에게해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오니아의 고대 상업도시 에페소에 있는 공중 토일렛은 한꺼번에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한다. 이 토일렛은 남자들만 이용하며 공동배변 행위를 했다. 50에서 60센티미터로 붙어 있어 변기 사이가 매우 좁은 토일렛이었다. 벤치에 일렬로 구멍이 뚫린 칸막이도 없는 형태였었다. 변기 아래로는 흐르는 물이 냄새와 청결함을 유지했고, 분수대 조각상은 로마의 문양 등으로 치장 되어 있었다 한다.

로마의 수세식 처리법은 에트루리아(Etruria, B.C 800 ~ B.C300)의 하수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기원전 6세기 경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Lucius Tarquinius Superbus, B.C 534~B.C 510)

왕이 하천 평야의 배수로를 이용하여 훗날의 로마 광장에 수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다니엘 푸러, 2005).

<그림 6>은 에페소의 유적으로 공동배변행위에 대한 근거를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그림 7>은 로마의 수세식 공중토일렛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그림 6> 로마의 공중토일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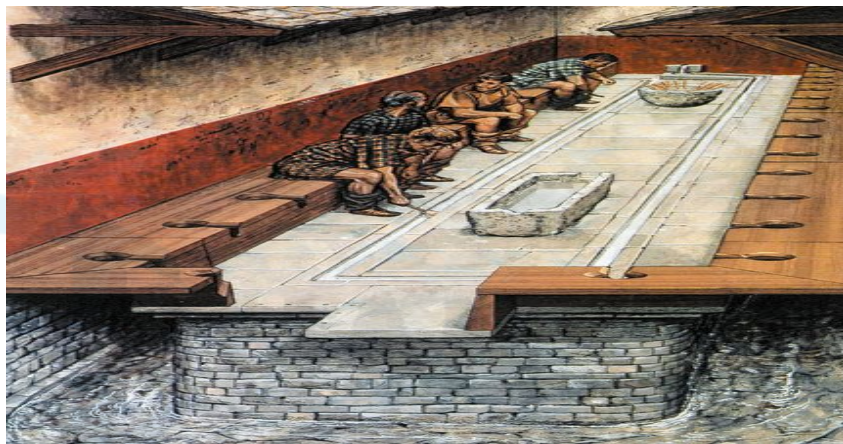
<http://egloos.zum.com/GLOB/v/4250219>



<그림 7> 에페소 공중토일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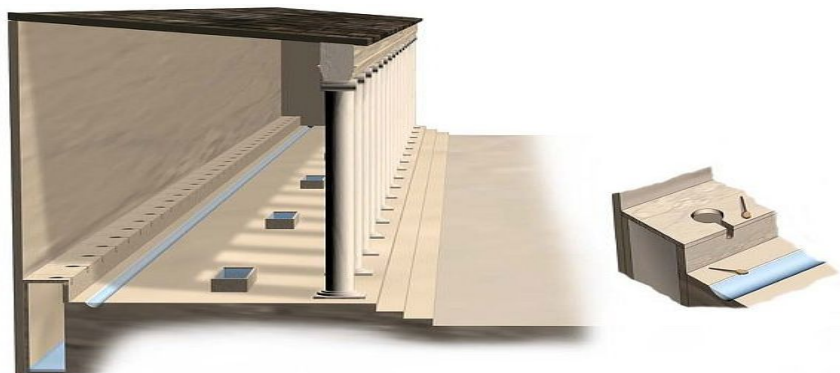
출처: <http://theologia.kr/>(한국신학마당)

로마의 화려한 토일렛은 변기가 일렬로 백 개나 되는 공중토일렛이 라르고 아르젠티나(Largo Argentina)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로마인들은 원이나 직사각형을 이루며 빙 둘러 앉아서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신과 세계, 원로원의 정치이야기, 주변지역 이야기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었다. 그 당시에도 공중토일렛은 임차인이 대행업자가 공중토일렛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림 9>에서 오른쪽 그림은 뒷일을 보는 도구로 스폰지가 달린 막대기가 여기 저기 놓여 있었으며 지금의 화장실용 휴지와 같은 용도의 도구였다. 그것을 발아래 물에 적셔서 뒤를 닦았다.



<그림 8> 로마의 수세식 공중토일렛 구조

출처: <http://myloveisrael.com/672>



<그림 9> 공중토일렛의 구조 모형도

출처: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



<그림 10> 로마의 공중토일렛

출처: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

중세의 일반적인 토일렛 위생 문제는 5세기 로마제국의 몰락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으나 공중토일렛의 로마 유산은 중세 수도원의 높은 기술을 남겼으며 위생적인 토일렛을 설치해 물을 능동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1급수는 식수, 2급수는 목욕탕, 마지막 3급수의 물은 토일렛으로 흘러 들어가 폐기물을 청소해냈다. 도시 주변의 늪지에 모인 폐수는 최대 하수구 클로아카막시마를 통해 티베르강으로 흘러갔다.

역사상 최고의 하수도 로마의 클로아카막시마(Cloaca Maxima)는 에트루리아의 왕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Tarquinius Superbus, B.C 616~578)가 도시를 습지에서 물을 빼내기 위해 통합로마에 하수도를 만들었다. 클로아카막시마는 작은 것은 중앙 하수구와 연결 되었고 커다란 것은 곧장 티베르강으로 연결되었다.



<그림 11> 로마의 대수로시설 클로아카막시마

출처: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

<그림 13>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수영장 안으로 연결되는 클로아카막시마이다. 크고 작은 하수구들이 모여 클로아카막시마를 이루며 클로아카막시마는 아직까지도 하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벽은 길이 2.5미터, 높이 0.8미터, 넓이 1미터인 하수구로 재료는 중유석을 썼으며 밑바닥 재료는 용암만으로 만들어 부식을 막았다. 아치형 지붕은 7~9겹으로 된 석회석으로 관과 관의 이음새에는 납으로 만든 꺾쇠를 박아 고정 했다.



<그림 12> 지금도 수로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클로아카막시마

출처: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



<그림 13> 클로아카막시마의 관의 모습

출처: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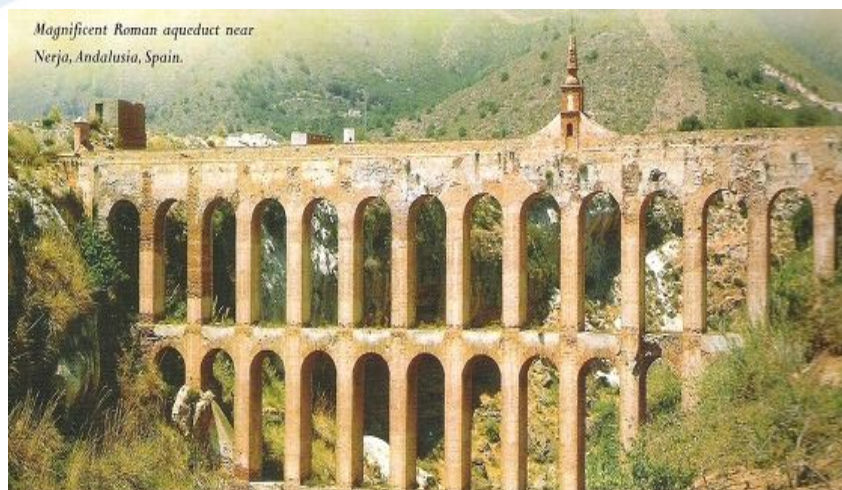
아우구수투스(Octavianus Gaius Julius Caesar, B.C 63년~기원후 14년) 황제는 클로아카막시마를 대대적으로 보수 하였다. 수면에서 원형 천장까지의 높이는 4.2미터로 규모와 크기가 더욱 확장 되었다.

<그림 14>은 공중목욕탕, 공중토일렛, 가옥으로 연결되는 납 파이프로 한 가 설에 의하면 로마인의 수로시설에 있는 납 파이프를 통해 납에 의한 중독이 많았다고 하나 물이 항상 흐르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설을 반증해 준다.



<그림 14> 납 파이프

출처: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



<그림 15> 클로아카막시마

출처: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

중세시대 성의 토일렛은 성벽에 튀어나와 있는 돌출 형 토일렛이나 별채의 탑에 있는 토일렛과 지하공간에 만든 토일렛이 있었다. 현대 건축에 있는 정화조 기능이 없어 성벽에 토일렛을 지었다. 토일렛 폭은 1미터의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굴뚝에서 가깝게 만들어 따뜻했다. 아래쪽 구멍이 뚫린 곳으로 몸을 돌려 용변을 보았으며 배설물은 해자로 바로 떨어지게 된다(다니엘 푸러, 2005).

<그림 16>은 해자와 성벽토일렛으로 해자는 조그맣게 둘레에 방어 목적으로 인공으로 땅을 파서 고랑을 만들거나 자연하천을 이용하여 적의 접근이나 성벽 기초의 침수나 지하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성곽시설을 해자라 했다.



<그림 16> 성벽주변의 해자와 성벽 토일렛

출처: <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283>,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그림 17> 왼쪽으로부터 성벽 토일렛과 밑을 내려다본 모습

출처: <http://www.ilbe.com/888045856>, <http://pub.chosun.com/client/news/print.asp?cate=C0>

중세 시대에 청결은 상대적이었고 목욕시설은 상당히 다양했다. 앵글로색슨들은 뜨거운 목욕을 했지만, 여성성을 강조시킨다는 이유로 뜨거운 목욕과 부드러운 침대가 금기시 되었다. 그 당시 젊은 남자들은 몸단장을 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경향을 지녔다. 덴마크의 침략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나라의 관습에 따라 매일 그들의 머리를 빗질하고, 매주 토요일 마다 목욕을 하고, 옷을 종종 갈아입었으며, 그들 개개인의 미를 발산하는데 있어 많은 방법을 사용했다. 암흑시대에 향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14세기 무렵의 향기들 중에 적어도 현대의 기준에서 특별히 미묘하거나 이국적인 향은 없어서 비록 고를만한 것이 거의 없었지만, 샤프란은 가장 인기 있는 향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 목욕은 명백하게도 더욱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다. 찰스 5세의 이후의 물품 목록은 24개의 금으로 된 세면대와 은으로 된 수많은 비슷한 것들, 그리고 47kg이 나가는 족욕기 한 대가 기록되었다. 그러나 고대 로마에서 처럼 파리에서 목욕은 보통 공중목욕탕에서 행해졌다. 그곳은 24시간 개방되었고, 누구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가능했다. 공중목욕탕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았다(Richard Corson, 2003).



<그림 18> 도시의 풍경

출처: 화장실의 작은 역사, 2005.

<그림 18>은 가옥의 돌출창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의 엉덩이가 보인다. 이 창이용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중세 사람들이 돌출 창을 토일렛 목적으로 뚫어 놓고 바로 배설물이 떨어지는 형태로 지어져 거리의 오물 냄새의 원인이기도 했다.

프랑스의 경우 베르사유 궁에는 그 방수가 자그마치 2000여 개나 있으며 본관 전면 길이가 580미터에 창문만 375개나 된다. 그러나 토일렛은 없었다.

왕과 만나고 싶어 하는 많은 귀족층들이 궁에 북적였으며 국왕과의 만남은 많은 시간이 걸렸기에 선 채로 귀족 여성들은 배변 행위를 해야 했다.

귀족 남자인 경우 커튼이나 기둥 뒤에 소변을 보았다. 이 시대에는 17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상하수도 망이 있어 물을 공급 했다. 루이 14세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된 배변행위가 당연시됐으며 상류층은 이러한 이유로 토일렛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인들은 요강을 들고 다녔고 요강이 차면 정원에 배설물을 버렸다.



<그림 19> 귀부인이 서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모습

출처: <http://photos.nasza-klasa.pl/55479857/1897/main/26ca52b887.jpeg>

<그림 19>은 귀부인이 서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그림이다. 이 시대의 여성들의 의상을 보면 겹겹이 풍성한 스커트를 입고 있어 욕구해결을 위한행위들을 가려 주었다. <그림 20>은 창을 통해 네 사람이 한곳을 주시하고 있는 그림이다. 가옥 사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그림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위에 있는 구조물도 토일렛이다.



<그림 20> 도시의 토일렛 풍경

출처: 화장실의 작은 역사, 2005.

이시기 유럽의 위생 문제는 후퇴의 양상을 거쳤으며, 목욕은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향수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고 수도원은 유럽에서 한때 가장 칭송 받는 향수 제조소가 되었다. 그곳은 메디치가와 교황들이 단골이 되었으며 수도원에 많은 기부를 했다(Richard Corson, 2003).

루이 14세는 베르사유궁을 유럽 문화의 핵심이며 프랑스 권력의 중심지의 목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공사를 통해 완성 했다. 1660년대부터 별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증·개축하여 베르사유의 시설은 약 2천개의 방과 창문이 375개이며 본관의 전면 길이는 580미터였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는 궁전의 성곽은 화려함을 전면부에 부각시켜 방어의 기능 대신 화려함으로 궁전을 우러러 보도록 했으며, 그 규모는 세계 최고였다.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생활은 엄격한 예절, 엄격한 예법에 따른 규정이 정확히 명시 되어 있어 규칙과 규율이 명확히 지켜지도록 했다. 태양왕 절대군주 루이 14세는 궁정문화를 왕족과 귀족생활방식의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1661년에 즉위한 루이 14세는 화려하고 세련된 궁정예절과 생활방식 등을 통해 독특한 궁정 문화를 창출했다. 특히 궁정 문화를 권력의 도구로 활용 왕을 흠모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여 귀족들을 통제했다.



<그림 21> 유럽 상류층의 토일렛

출처: <http://blog.naver.com/tnwlsdl702/150115834284>

군주는 서열을 명확히 했으며 귀족들에게 지위를 내렸다. 궁정의 토일렛 문화는 일종의 연극 무대였으며 군주의 절대권력과 신성불가침성을 장엄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군주의 용변을 보고자 하는 욕구조차 정치 연극의 일부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루이 14세는 요강 위에 앉아 친족들을 서슴없이 맞아들였다. 루이 14세의 향문에 난 종기에 대해 식사할 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예의에 벗어나거나 금기시 되지 않았으며 유럽 전역의 왕의 종기 제거를 이야기 거리로 삼았다. 왕은 관장하는 일을 귀족들을 불러 돕게 했으며 귀족들은 스스로 배변 욕구를 처리할 수 없었고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였다. 왕의 은밀한 부분까지 권력에 일부로 활용했다. 귀족들은 왕 가까이 있기 위해 이백년 전부터 귀족의 자손인 증거를 대어 틀림이 없음을 밝혔으며 많은 금액을 지불해 왕의 엉덩이를 깨끗이 닦아주거나 검사하는 일과 왕의 요강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정원에는 오렌지 나무를 많이 심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오랑제리 정원’이라고 불렸다. 수세식 화장실은 한군데도 없어 귀족들은 요강을 이용했다. 베르사유에는 대략 삼백개 정도의 요강이 있었다. 루이 14세가 쓰던 요강은 왕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화려하게 그려져 있었고 요강은 초록색

벨벳으로 속을 넣고 안쪽은 붉은색 에나멜로 칠이 되어 있었다. 전용 요강이 26개였으며 상자 안에 요강을 넣어서 사용하는 의자식 변기를 사용했다.



<그림 22> 왼쪽으로부터 루이 13세의 변기, 루이 14세의 변기(Louis XIV's Toilet)

출처: 왼쪽으로부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erozen>, EBS 클립뱅크(Clipbank)

이처럼 위생적인 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이유로 베르사유의 냄새는 극심했으며 냄새로 인해 루이 15세는 그의 방을 매일 다른 향의 향수로 채우도록 요구했다. 루이 14세는 진한 향수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향수를 애용했다는 기록이 있다.(Richard Corson, 2003).



<그림 23> 오스트리아의 변기

출처: <http://pgr21.com/pb/pb.php?id=recommend&no=2009>

<표 1> 유럽의 요강

요강의 내용	요강 이미지
여성용 요강 불타르	 <p>출처: http://m.blog.daum.net/p-teacher/80#</p>
침대 밑에 넣어 쓰던 남녀 공용 요강	 <p>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ero</p>
부르달루(Bourdoulou) 프랑스 여성의 휴대용 요강	 <p>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ero</p>

출처: 본 연구자의 작성표

2.1.3 아시아의 토일렛 문화

중국의 고대 토일렛 문화에 대한 문헌 기록이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얻어진 유물들은 대부분 소실되거나 취급 소홀로 많지 않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물로 한(漢, B.C 202~AD 8)나라 시대의 소변 요강이 있다. 이 시대 중국 사람들은 이 소변 요강을 호자(虎子)라 불렀다. 주(周, BC 1027~771)나라

시대에는 호자와 같은 위유(威有)가 있었다. 고대중국인은 안채에 변기를 두고 있었다. 삼국 위(魏, BC220~265)나라시대에는 나무변기를 사용했는데 이 나무로 된 변기는 후에 지금의 중국 가옥에서도 흔하게 있는 변기인 마통(馬桶)의 시초가 되었다. 이 변기는 낮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보관했다가 밤에는 침상 옆에서 사용되었다. 당(唐)나라, 진(晉)나라 때는 상류층에서는 변기를 칠보(七寶)로 장식해 화려함을 일상생활에 담았다. 중국 상류층에서는 의자식변기가 사용 되었으며 그 밑에 요강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초기 유럽의 의자식 토일렛과 비교적 많은 점이 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4> 중국의 요강 호자

출처: <http://www.sotongsinmun.com/bbs/board.php>

이러한 형태의 변기 안에 은(銀)이나 동(銅)으로 만든 금속제의 분(盆)이 들어 있었으며 그 위에 앉게 설치되었으며 용변을 본 후 시종들이 뚜껑을 덮고 가지고 갔다. 왕궁 밖이나 노천에서 용변을 급하게 보게 될 때에는 기름에 절은 무명 황색 천 텐트를 사각으로 환관(宦官)이 설치했다.

그러면 여관이나 마마가 그 안에 들어가 손을 씻은 물을 바치기도 하고 종이를 직사각형으로 잘라 여러번 비벼 부드럽게 하여 뒤를 닦았으며 옆에 있으면서 심부름을 했다. 용변을 본 후 여관은 수를 아름답게 놓은 수건을 바쳤으며 왕은 손을 닦았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처럼 변기에서 국가행정을 보는 왕의 중국에도 있다. 한광(韓曠)은 기원전 3세기경 연나라 왕으로 변기에 앉아 용변 보는 습관을 지녔다. 한광은 목재 변기에 앉아 국가행정, 식사, 독서, 음악 등을 들었으며 변기를 옥좌(玉座) 삼았다. 한나라의 무제(武帝 B.C 156~B.C 87) 또한 변기에 앉아 장군과 대신을 맞았다(이상정, 2002). 중국

서민의 변기는 마통(馬通)이다. 호자(虎子)가 소변용 요강이면 마통은 대소변용 변기이다. 마통은 나무로 되어 있는 항아리 형태로 높이 약 40센티미터이며 작은 림주 통처럼 생겼다. <그림 25>처럼 옷칠을 한 마통은 붉은색을 띠었다. 뚜껑 역시 옷칠을 한 것과 가끔씩 금색무늬를 넣기도 하였다. 마통은 마통아(馬桶兒), 변통(便通), 마자(馬子), 정통(淨桶) 등의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이상정, 2002). 현대의 중국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유아용 변기도 사용한다.



<그림 25> 호자와 마통

출처: http://www.bkm.or.kr/new/contents/info/column_02_view.asp



<그림 26> 중국의 고대 변소 모형

출처: <http://ppss.kr/wp-content/uploads/2015/07/a.1-pigs.jpg>

고대 중국의 변소는 한자로 청(圜), 설은(雪隱)이라는 말이 있다. 청(圜)의 뜻은 ‘물’이고 수세식 변소가 고대에도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과거의 변소는 없다. 고대 변소는 가옥 한구석에 우리를 만들고 인분 먹는 돼지를 기른다. <그림 26>은 고대 변소이며 이와 같은 변소는 지금까지도 중국 시골에 있는 구조다. 이것은 고대 인분(人糞)을 처리하던 방법

중 가축을 이용한 변소가 지금까지 내려오며 농경사회에서 볼 수 있다. 돼지 변소는 동남아시아도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 제주도에 그 유적이 남아 있다.

대도시나 서비스지역 외의 보편적인 중국의 토일렛은 문이 없는 형태의 것이다. 중국의 보편적인 공공변소에는 칸막이와 출입문이 없다. 가옥에서는 용변을 보다 눈이 옆 사람과 마주친다. 중국인들은 가옥에서의 토일렛보다는 마을의 공동토일렛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 중 하나로 남녀가 따로 사용한다. 매일 아침 사람들은 마을 공동토일렛에서 이웃과 만난다. 서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중국의 토일렛은 보편적으로 소변을 보는 곳과 대변을 보는 곳이 따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운데로 통로가 나 있는 형태이다. 소변을 보는 곳에는 옆으로 오목하게 고랑을 길게 파 놓았다. 대변을 보는 곳은 20센티미터 정도의 변조로 통하는 관이 장방형(長方形)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통로보다 한 층 높게 직각으로 여러 개 만들어져 있다. 용변을 쭈구리고 앉아 신문, 잡지를 읽는 등의 모습이나 대화 하는 모습이 보인다.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 토일렛은 부끄럽고 지저분한 배설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보 교환 장소인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배설물 처리에도 자연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는 인접한 바다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동남아에서는 강물을 이용한다. 방콕 시내의 시민들은 강을 넓은 길처럼 사용하고 있다. 집 역시 강물 위에 지어 활동하면서 살아간다. 수상시장(水上市場)의 용변을 보는 사람들은 몸의 하체를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강물 속에서 해결 한다. 운하(運河), 강가에 원두막 같이 생긴 간이 변소도 있다. 시설이 너무 조악 하여 둥근 통나무만 엮어 놓은 상태이므로 강물 속에 빠질 수도 있다. 강에서 빠진 인분은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태국의 하천 아래의 변소의 법칙 또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이는 형태와 매우 유사하며 마을에 공동변소가 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작고 조악한 형태의 공동변소와 좀더 큰 콘크리트 형태이 공동변소가 있다. 너무 더럽고 입구까지 배설물은 악취를 유발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공동변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적당히 후미진 도로나 길에 용변을 보고 난후 나뭇잎이나 흙을 이용하여 가린다. 베트남은 사람의 배설물을 양식에 사용한다. 널판지를 양식장 위

에 걸쳐 간단한 형태의 변소를 만든다. 플랑크톤이 인분에 의해 개체를 늘려 가면 작은 물고기의 밥이 된다.

인도네시아도 강물 위에 설치된 변소를 사용한다. 빈민가의 공중변소는 지붕이나 문짝하나 없이 50cm 정도 높이의 칸막이만 설치 되어있다. 쭈구리고 앉으면 앞에는 통나무가 하나 걸쳐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것을 잡고 용변을 본다. 놀라운 것은 강물 아래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사롭게 세탁이나 목욕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농촌에서는 대개 변소를 찾아볼 수 없다. 논 가운데 약 일미터 높이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그 주위를 건초 따위로 둘러진 야외 변소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곳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의 어깨를 밖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집 앞 저수지나 도랑에 앉아 변을 보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어서 물 위에 누런 고체가 뚱뚱 뚱뚱 떠내려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이상정, 2002).

방글라데시는 실수하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강 위에서 용변을 본다. 조악하고 허술한 강상(江床) 변소를 사용한다. 변소까지는 평행(平行)한 대나무가 두개로 길게 연결되어 있다. 잡고건너 면서 발을 디딜 수 있게 한 것이다. 방글라데시 시골의 토일렛은 영성하다. 시골 토일렛은 60센티미터 정도의 깊이로 파서 배설물이 스며들게 하여 굴기가 10센티미터인 통나무를 두 세개 엮었다. 한 개만 통나무를 걸쳐 놓은 곳은 흔들거려 용변을 보다 구덩이 아래로 떨어지기도 한다. 자연환경 때문에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 방글라데시에는 네 개의 기둥을 세워 원두막과 비슷한 높은 곳에 지은 고상식(高床拭)변소도 있다. 1미터내지 1.5미터의 나무를 걸쳐 놓고 분뇨 구덩이를 파지 않아 평지 위에 떨어진 인분은 방목(放牧)하는 닭 사료로 쓰인다. 페르시아 남자들과 방글라데시 남자들은 쪼그리고 앉아 소변을 본다. 기후와 문화에 의해 스커트형식의 옷을 입어 쪼그리고 앉아야 편하기 때문이다.

인도인들은 갠지스 강을 성스럽다 생각해 숭배한다. 강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이며 이 강에서 태어나 목욕하고 얼굴을 씻으며 이빨을 닦고 용변을 보며 마지막까지 ‘신성한 갠지스 강’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태운 시체의 재를 뿌린다. 참선(參禪)하는 수행자들과 용변을 보는 사람, 강물을 마시는

사람 등이 함께 공존 하는 이 강은 정신적 젓줄이며 인도인의 정신이다.

인도 여러 곳에서는 여자는 샤론으로 남자는 나신(裸身)으로 가슴을 가린 채 수욕(水浴)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강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차도 지나간다. 수욕 중 용변을 보는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고 움직이지 않는다. 수상(水上) 변소는 상류에 있고 수욕은 하류에서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장실이 기원전 3000년경 모헨다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이유로 인도의 토일렛 문화는 낙후 됐다. 고대에서 부터 인도인들은 배설물을 강에 흘려보냈다. 분노를 저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불교 경전 열반경(涅槃經)에 ‘물을 이용해 씻어 내는 화장실’이라는 뜻에 ‘유칙(流則)’, 수세식 화장실을 의미하는 내용이 있다. 내부에 설치된 통로(通路)로 되어 배설물이 물과 한꺼번에 움푹하게 땅을 파 놓은 곳으로 흘러들게 되어있다. 위생적이며 냄새가 안 나는 시설이 수세식 화장실로 움푹하게 땅을 파 놓은 곳으로 배설물이 흘러들어 강으로 빠져 나가는 형태로 불교사원에서도 유칙은 수세식 화장실로서 받아들여져 쓰였다. 석가모니가 있던 불교 사원은 비구들의 화장실이 없어 항아리를 묻고 화장실을 만들었다(하순봉, 2005). 고대 인도 풍습에서 기인한 불교의 수세(水洗), 수욕(水浴)사상은 불당에서도 용변과 수욕에 관한 논하는 글이다. 회교도들도 영향을 받아 대정(大淨), 소정(小淨)의 부분 욕에서 전신욕의 순서로 한다. 용변 후 수통의 물을 이용해 뒤처리한다. 특이할만한 점은 항문과 손가락만으로 처리한다. 흐르는 물이 청결함을 유지해 준다는 인도인들의 고대부터 내려오는 생각이 물을 흐르게 하는 수세식변기를 사용하게 했다. 고대인도 양식과 페르시아 통일로 인한 회교의 포교의 영향은 로마와 크레타 섬의 수세양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인도 토일렛 입구에는 작은 통에 물이 담겨 있다. 그들은 용변 후 뒷물로 빈 양동이나, 빈 병을 이용해 물을 떠서 사용 한다. 들판이나 노천에서 용변을 볼 때도 똑 같은 방법을 쓴다. 오른손으로 뒷물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왼손은 안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왼손으로 식사를 하거나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지 않는다. 서사모아에는 바다 쪽으로 뻗은 가교(架橋) 위에 지은 변소가 있다. 긴나무를 내부에 엮고 중간에 동그랗게 타원형을 뚫어 놓았다. 배설물이 바다에 바로 떨어져 바닷물에 흘러나가게 된다. 이른바 해세식(海洗

式)이다. 스리랑카 어촌에서는 방뇨·방분을 해안에 한다. 만조(滿潮)때에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세식 화장실이 된다.



<그림 27> 대자연 순환을 하는 인도의 화장실

출처: <http://386dx.com/b/v/ilbe/458422/2>

고대 일본은‘가와야’라고 하였다. 변소를 개울 위에 만들어 배설물을 강물 위로 흘려보내게 한다. 뒤에 나온 명칭은 농경 사회에서 필요한 비료를 분뇨로 사용하던 것에서 영향을 받은 명칭이다(백승우, 2003). 고대 일본인들은 시냇가 위에 나무를 엮은 형태의 변소에서 방뇨·방분의 사실이 있다. 수고우 유적은 고대 취락 지였는데 지금의 일본 지바현에 있다. 붉은 찰흙에 의해 구성된 층으로 속에 통나무를 일정한 폭으로 박고, 다리처럼 나무를 위에 걸쳐 만든 것이 출토 되었으며 그 바닥에서는 분석(糞石))도 발견되었다. 현재까지도 동남아에 남아 있는 하상(河床) 변소의 고대 분뇨를 하천에 버리는 ‘고야산(高野山)이라는 변소도 있다. 고야산은 와카야마 현에 있는 한 지명으로 원래 불교의 중심지인데 산위에서 물을 부엌과 변소로 끌어들여 이용하고 수세식 변소와 수도를 강으로 흐르게 하여 이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화장실을 ‘고야산’이라고도 한다(이상정, 2002).

‘고가(糞架)’는 원래 승방(僧房) 뒤편에 있는 변소를 말한다. 또한 ‘조즈바(手水場)’란 말도 용변을 보고 난 후 손을 씻을 장소를 일컫는 데서 나온 말이다. 고가와 조즈바라는 말은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7)부터 불렸다.

15세기 후반부터 사용한 변소라는 뜻은 ‘변을 보는 장소’라는 것이지만 한자의 ‘便’은 ‘침착 해진다’라는 글의 뜻도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에서 쓰이는 레스트 룸(rest room)과도 일맥상통 하는 바가 있다. ‘손쉬운 장소’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또한 ‘도이레’를 일본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가장 최근이며, 서양의 토일렛(toilet)에서 단어의 근원을 두고 있다.

일본은 나라(奈良時代, 710~794)시대에서 헤이안(平安時代, 794~1185)시대까지만 방분·방뇨를 집 주변에서 해결하였다. 중국에서 농업 기술에 영향을 받아 인분을 농업에 이용했다(백승우, 2003). 헤이안 시대에는 적은 수의 상류층들이 뚜껑이 달린 변기를 병풍 뒤에 두고 사용했다. 그들은 모래, 재를 요강에 담아 배설물을 마당에 묻었다. 가마쿠라(鎌倉, 1185 ~1333)시대에는 농업이 발달을 이루는 시기였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송나라의 분뇨 이용법을 일본에서 받아들여 집집마다 변소를 만들었으며 분뇨를 수거하여 방뇨·방변의 없어졌다.



<그림 28> 일본의 수병

출처: <http://memolog.blog.naver.com/PostThumbnailView.nhn>

근세에도 그들은 방뇨를 노상에서 하는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근세의 ‘분소로(糞小路)’라는 교토의 거리는 공중토일렛 처럼 누구나 가서 대소변을 보았다. 메이지 3년 요코하마시에는 83개소의 토일렛이 지어져 최초의 일본의 공중토일렛이 되었다. 에도시대에는 교토의 여성들은 노방 소변 통에 서서 소변을 보았다고 한다. 일본의 귀족의 부인, 아가씨, 여염집 아낙네 등의 여인들이 선체도 도로벽에 엉덩이를 बैठ고 서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자연스러

왔다. 전통의상인 기모노는 뻑뻑하게 천을 빙 둘러 입는 형태로 서서 소변을 볼 수밖에 없다.

20세기에 와서 일본 여인들도 팬티 착용 후 서서 일을 보는 모습이 사라졌다. 수거식 변소가 있던 시대에는 인분이 매매가 보편적으로 있었다. 인분을 매매 하던 메이지(明治時代, 1868년 ~ 1890년), 다이쇼(大正時代, 1912년 ~ 1926년)시대까지 이어져 왔으며 그 시대에는 시부야나 신주쿠에서도 인분을 실은 우마차가 냄새를 풍기며 다니고 있었다. 수거된 인분은 오차노미즈역 밑 강가에서 분뇨선을 타고 농촌까지 운반됐다.

메이지시대 이전에도 대저택에서는 분뇨를 실어 바다에 버렸다. 그 일에 대한 책임자를 ‘갈서(曷西)’라 했고 그 분뇨선 또한 갈서선(曷西船)이라 했다. 요즘도 현대판 갈서선이 도쿄의 분뇨를 바다에 버린다. 철을 섞어 바다에 가라앉게 하는 처리 방식이다. 분뇨의 폐기 지점은 도쿄에서 300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인데 이렇게 바다에 분뇨를 폐기하는 방법이 도쿄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요코하마, 가와사키 등 많은 곳에서 예전의 갈서선이 ‘황금함대’라고 이름으로 활동 하면서 이를 환경오염으로부터 감시하는 감시선이 뒤를 따라다닌다.

1897년에는 공중토일렛을 1일 1회 청소실시하고 1917년에는 ‘진개, 칫정, 하수’ 취급 규칙이 제정되었다. 1962년에 일본 내무성 후생성식은 기생충, 미생물규정을 발표했다. 가격이 저렴한 화학비료 보급으로 가치를 잃은 분뇨는 사라졌다. 일본의 ‘아이누’는 에스키모 종족인 가라후토, 규슈북쪽 섬 원주민이다. 남녀구분 없이 가옥과 떨어진 곳에 간단하게 변소를 만들어 사용한다. 추운 일본지방은 용변이 즉시 얼어 버린다. 이러한 연유로 그들은 망치나 도구를 용변을 볼 때 가지고 다닌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주둔한 미군에 의해 최초로 좌변기 보급 1890년 영국 수세식 좌변기가 설치된 열차를 수입 도카이 도서에 처음 배치하였다. 과거의 일본 역시 토일렛은 더럽고 냄새나는 비위생적인 곳으로 인식해 왔다.

현재는 밝고 깨끗하며 휴식과 미용의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이 있는 편리한 토일렛의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이상정, 2002).

2.2 토일렛 개념 및 인식의 변화

2.2.1 토일렛의 의미

토일렛의 의미는 프랑스어에서 시작된 400년 역사를 가진 단어인 'Toile'은 화장할 때 두르는 '망토'의 의미였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변욕 과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toilette'표현은 배설을 의미하는 부드러운 언어로 발전하였다. 처음 토일렛'toilet'단어의 의미는 트왈르(toile) 화장이라는 뜻에서 시작되었으며 화장을 할 때 화장품을 펴 바르는 '형겔조각'의 의미와 화장용 망토, 화장대, 경대를 덮는 천의 의미를 말하는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드레스룸과 화장대, 변기가 같이 있는 통합된 공간의 의미를 지니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라 할 수 있다.

토일렛은 그 자체의 명칭만으로도 가치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척도이며 토일렛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문화적,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예전 우리나라의 토일렛 의미는 단순히 몸속의 배설 욕구인 '변욕'만을 해결하는 장소의 의미로 '칙간', '뒷간', '변소' 등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토일렛에 대한 전환의 의미의 말로 사용된 해우소는 우리나라에서 옛 부터 사찰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로 해우소 명칭의 의미는 풀다 '해'자와 근심 '우'자를 사용해 '근심을 풀어내는 장소'로 우리나라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토일렛은 인간에게 있어 피해갈 수 없는 생리현상인, 배설의 의미와 동시에 근심까지도 풀어 낼 수 있는 장소적 의미의 말로 배설과 동시에 번뇌를 덜어 내는 의미에서 사찰에서 쓰였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토일렛은 미의 기능과 배변의 기능, 청결의 의미와 더불어 인간의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욕구 만족, 생활 재충전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인간의 사회적인 기본요소로 서양에서 비롯된 공간의 간결화, 체계화된 공간으로서 다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

2.2.2 토일렛이 유래

중세 토일렛 문화를 살펴보면 산업 발달로 인해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복층형 구조인 밀집된 도시 형태의 가옥에 살고 있었으며 수세식 변기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기로 주거지에서는 좌식변기와 요강을 사용하였다. 도시 분뇨 처리의 과정에서 복층에서의 분뇨 투척, 노상 방뇨가 빈번히 행해졌던 시기로 심각한 악취와 오물이 도시를 덮고 있었다. 이 시기 영국 상류층들의 생활습관에 의해 토일렛 문화가 지금의 형태를 가진 기초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영국의 상류층들은 부와 명예, 직위 상징인 동시에 감지 않은 머리를 감추기 위해 가발을 쓰고 다니는 유행이 있었던 시기로, 침실 옆에 분을 바르는 일을 하는 ‘파우더를 뿌리는 작은 방’인 ‘파우더 클라넷(powder closet)’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위생 처리의 한 방법으로 영국 상류층들은 가발에 분을 발랐으며, 가발을 쓰기 전에 분을 바르고 ‘파우더 클리넷’에 있는 물을 이용해 분칠이 끝난 후 손을 씻고 간단한 용변을 볼 수 있었다. 이 때의 ‘파우더를 뿌리는 작은 방’은 드레스룸, 콘솔과 같이 분장, 화장, 용변을 한 곳에 집약 하므로써 동선과 미의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대 토일렛이 기초가 되었다.

유럽의 화장하는 공간에서 더욱더 확대된 의미로 토일렛‘toilet’이란 말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용변의 공간, 욕실 공간, 분장 공간이 하나로 기능적 결합을 하면서 실내로 들어 온 것에 그 사실적인 의미가 있다. 용변과 화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개념과 토일렛‘toilet’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약 4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현재에는 ‘W·C’, ‘Toilet’, ‘Restroom’ 등이 토일렛 ‘toilet’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토일렛의 의미 중 호텔이나 빌딩 내에 설치되어 있어 화장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레스트 룸(rest Room)은 ‘휴식’이란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콤포트 스테이션(comfort station)이라고도 하며 ‘평안’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W·C’전문글자는 해링턴(Harrington James, 1611~1677)의 명명한 ‘Water Closet’의 영어 단어의 약자로서 ‘물이 있는 작은방’이란 의미로 영국영어로 처음 ‘수장형’이란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토일렛은 그저 급한 생리작용만 해결하고 떠나는 곳이 아닌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며 외모를 꾸미고 화장을 하는 미용의 의미를 함께 내포 하게 되었다(백승우, 2003).

2.3 한국의 토일렛 문화사적 특성

우리나라 토일렛의 다른 표현인 ‘칙간’이 있다. 이는 한자에서 나온 말로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쓰이는 말이다. 현재도 중국은 토일렛을 ‘칙간’으로 부른다. 옛날 우리나라는 강기슭에 토일렛을 지어 분노를 강에 떨어지게 하였다. 수장식 화장실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 후 일본에 전해져 ‘가와야’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또한 칩정은 수세식 분류에 속하는 수세식 토일렛이라 할 수 있다. 수세식은 배수로 시설이 발달한 유럽, 동양, 남방의 형식이다. 인분을 비료로 이용하던 아시아국가에서 일시적으로 행하던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강변 일부 마을에서 행해지던 방식이다.

요강은 간이식 변기로 대변보다는 많은 횟수에 소변을 봐야 하는 이유로 사용하게 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물건이다. 작은 항아리모양으로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백승우, 2003). 모양은 밑이 평평하여 넘어질 염려가 없고 둥근 형태로 항아리처럼 중간이 볼록하다. 백자, 유기, 청자, 청동, 자기, 도기로 된 재질과 나무로 되어 옷칠한 것 등 종류와 재료가 다양하다. 작은 크기의 요강은 사랑방에서 쓰던 용도로써 허리 속안에 넣어 소변을 받아쓰는 용기였다. 큰 요강은 가족들이 같이 썼다. 새색시가 혼수로 용장식된 요강을 가지고와 쓰는 경우도 있었다. 요강에 꽃무늬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사용하였다. 남자용은 뚜껑이 없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사기요강이 경우 백색 무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료의 선택은 만들어진 시기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청자요강은 고려시대, 백자요강은 조선시대, 그리고 청동 요강은 그 전후의 시대를 통해 제조, 사용되었다. 낫쇠로 된 요강은 일상용기를 낫쇠로 쓰이던 시기부터 보편화된 것이며 일제 해방직전 군수물자로 전량 걷어 갔기 때문에 물자 부족으로 인한 자기, 도기, 사기 등 경량화 되지 못한 형태의 요강을 쓰던 시대가 지속되었다.

한국에서의 요강의 처음 사용된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 언제 요강을 사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일본의 박물관에 우리나라의 고대 변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부여 군수리 절터에서 발견된 것이다. 1956년 여성용변기가 먼저 출토 되었고 그 뒤 20년에 남성용변기를 출토 하였다.



<그림 29> 백제 화장실

출처: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41&contents_id=7695

<그림 29>는 백제 뒷간의 모습으로 익산 왕궁리 유적의 출토 모습이다. 대략 1.5미터에서 3미터 정도의 깊이에 구덩이를 판 형태이며 분뇨가 일정한 양이 모이면 대형 배수로에서, 궁 밖으로 나가도록 설계 되었으며 서북쪽에 다른 곳과 통하지 못하도록 격리되어 있다. 뒷간의 앞쪽에는 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나무 막대를 향아리에 담아 놓았다(<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 둥근모양의 안정적인 형태로 모양이 바뀌었다. 재질에 있어서도 백자, 청자 등으로 백제의 변기는 발전된 형태가 되었다.

신라 불국사의 극락전 앞마당에 여성용 소변기로 보이는 네모진 노릇돌은 40센티미터 곱하기 70센티미터 가량의 가운데를 타원형으로 파내고 깊이를 대략 15센티미터 앞쪽의 뽕족한 구멍을 낸 것이다. 지금의 수세식 변기와 그 원리는 같다(이지혜, 2002). 백제시대의 변기는 배설물의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뚜껑이 별도로 되어 노인, 어린이 환자의 소변의 용도만이 아닌 대변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뚜껑이 없는 호자와 수병은 소변을 받아내는 용도로 일체형 그릇으로 되어 있다. 호자는 3세기 이후 중국의 오나라에서 백제로 들어 왔다(김광언,

2002). 요강의 재질은 집안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청동제는 견고하고 값이 비쌌으므로 귀족이나 부호의 가정에서 주로 사용 하였고, 도자기의 주된 사용은 일반 서민 가정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 할 수 있었다. 뚝요강이 사용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연대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들다. 초기에는 품질이 좋은 뚝쇠를 여러 번 녹여 만든 요강이 대부분이었다. 이 방짜 요강은 쇠의 질이 좋아 녹이 잘 슬지 않았다. 견고하게 발전 하면서 가내 수공업에서 벗어나 상업으로 발전했다.



<그림 30> 백제시대 휴대용 호자

출처: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41&contents_id=7695

왼쪽부터 1)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요강, 백제시대 여성들이 사용했던 휴대용 요강 2)번은 호자는 남성용 휴대용 변기다. 부여 군수리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유적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 고려시대는 문헌상 으로만 존재 했던 호자 한 점이 국립중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개성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범 끌 호자이다(이화영, 2009).

백제시대에 옥(玉)이라 표현되던 청자와 백자의 요강이 귀족계통 가정에서 주되게 이용하였다. 후기 백자에는 요강에 여러 가지 꽃무늬를 넣어 아름다움을 표현 했다. 우리나라에서 뒷간을 주거와 되도록 멀리 둘 수 있었던 것은 요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류와 하류층 할 것 없이 요강은 생활필수품이었으며 혼수품에

도 뚫요강과 뚫대야를 첫째로 켜었다.

생필품이었던 요강은 비우고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상류층은 날마다 대접해야 하는 많은 손님과 가솔들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집안일을 맡아 보거나 시중을 들던 청지기나 요강만을 전담하는 요강 담사리 머슴이 비우는 일을 맡았다. 일반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요강의 오줌을 뒷간에 버리고 우물가나 집 앞 개울에서 깨끗이 씻었는데, 짚을 구겨 수세미 대용으로 삼고 비누 대신 암키와 가루를 묻혀 뚫요강을 닦았다. 현재 궁중 뒷간의 문헌은 이렇다 할 것이 없으며 현존하는 고궁 설계도 역시 칩간의 기록은 없으나 그 흔적이 창덕궁 대조전에 회랑 경운각 뒤편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궁의 욕실은 경운각의 뒤편 칸이며 옆 작은 칸이 뒷간이라 학자들은 추측 한다.

조선시대 왕은 ‘매화틀’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했다. 매화틀은 높이 21센티미터, 폭 39.5센티미터, 길이 48.3센티미터의 나무로 만든 변기로 천을 씌운 모양이다. 대변을 볼 수 있는 변기로 구멍이 가운데 뚫어져 있다.

등받이를 설치해 나이 어린 왕자를 위한 매화틀도 있었다. 복이나인이 매화틀과 매화 그릇을 항상 챙겼다. 왕이 불일을 보기 전에 복이나인은 매화틀 속에 미리 ‘매추’를 뿌려 놓았다. 매추는 잘게 썬 여물이다. 용변 후 밑은 명주수건으로 닦았다. 전담 의사인 전의감에게 매화 그릇 속의 내용물이 전달됐다. 왕의 건강상태를 내용물을 살피고 냄새를 맡아 확인 했다.



<그림 31> 조선시대 왕이 쓰던 매화틀(위), 매화그릇(아래)

출처: 2000 <http://cafe.naver.com/namuhue/1032>, http://m.blog.daum.net/_blog/

부유했던 귀족층에서도 매화틀과 비슷한 모양의 변기를 모방하기도 했다. 매화틀과 이 변기는 서양의 변기처럼 내용물이 차면 버릴 수 있게 바닥없이 변기아래 받침 그릇을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내용물이 차면 버릴 수 있다.

한국 칩간의 유형을 보면 칩간이란 대소변을 함께 볼 수 있는 목적의 장소나 시설로 뒷간, 헛간, 복수간, 통시 등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이중에는 남녀가 달리 사용하는 것, 여럿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것, 다른 시설과 함께 있는 것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이름을 붙인다고 되어 있다. 그 대략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노천 칩간의 형태는 제주도 유형처럼 노뚝돌 같은 돌을 써 대소변 받는 부분을 만들어 낸 것과, 헛간에 부속시켜 설치한 것으로 비료를 만들 목적으로 노뚝돌을 놓고 재를 쌓아 배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다. 농촌가옥 밖 한구석에 칩간 형태로 독을 묻고 벽을 친 형태이다. 헛간 구조의 칩간 유형으로 위에는 이층의 마루를 깔고 지붕을 만들어 이영을 잇거나 기와를 형편에 따라 얹었다. 마루에 구멍을 뚫고 배설물이 보이도록 하였으며 문은 널빤지로 만들어 달았다. 헛간의 용도까지 겸한 칩간은 담장에 의지해 갑자기 나타날 짐승에 대비해 돌계단을 밖에 설치하였다. 사찰의 칩간은 지형을 이용해 높은 곳에 규모 있게 칩간을 지어 많은 사람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사랑채 밖에는 외칙을, 안채 뒷마당에는 내칙을 두어 마당보다 훨씬 높게 두꺼운 판자로 발을 댈 수 있게 노두를 두었다. 아래는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저장 공간을 만들 수 있게 시설했다.

신라시대의 유물로 큰 판석을 가공해 노뚝 돌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경주 첨성대 인근에서 발굴한 매우 큰 석조 탱크가 설치된 공중 칩간은 충청도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불국사에도 그 칩간 유적이 있다. 불국사 있었던 노뚝돌로 극락전 앞마당에 사각형의 가로40센티미터 세로70센티미터 돌로 깊이 15센티미터 가량 중간부분에 타원형으로 길게 파낸 구멍을 바깥으로 관통시킨 여자용 소변기로 추측되며 재질은 돌로 만들었다. 용변 후 물과 함께 배설물이 구멍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변기를 위한 뒷물용 시설이 따로 있었다. 또한 목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 칩간은 내부에서 여인들이 뒷물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며 ‘복수간’이라 하며 목욕통을 함께 겸비한 것은 세답방이라 한다(이상정, 2002).

간이용 변기는 골방 밖 툇마루 한쪽 끝에 설치하고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나무

통, 장군독 등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근대 우리나라의 토일렛은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곳으로 감춰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해 생활과 분리하는 태도를 보였다.

개화기 이후부터 한일합방까지의 시기에는(1876~1910년) 개화사상과 갑오경장이 있던 시기로 서구문물이 주거공간에도 진입하게 된다. 이후 일제강점기(1910~1945년)에는 건축가인 김유방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토일렛이 주택 내부로 진입하게 되어 주거공간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다(이민정, 2000). 1930년대에는 욕실과 토일렛이 분리된 구조로 욕실이 가옥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해방이 있던 1945년 이후 복구기에 들어서면서 토일렛은 마당 한쪽이나 부엌 옆에 위치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 서울의 분뇨 처리는 100만이었던 서울 인구는 6.25사변 수복 이후부터 50년대에는 엄청난 팽창을 했다. 서울의 산은 판자촌으로 변화했다. 청계전은 탁계천이 되어 공해와 시궁창으로 변해 버렸다. 1960년대에는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토일렛이 마당 한쪽이나 부엌 옆에 위치하였다. 서울시는 제도적으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미 1962년대 처음 양변기 사용 서울 인구는 200만을 넘었다(이영심, 2000). 퇴비로 이용되는 것은 우마차나 지게꾼이 처리했으며 그 외에 나머지는 배설물은 후미진 곳이나 개울가나 강가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했다(이지영, 2002).

60년대의 서울은 청소행정이 체계가 잡혀 가던 때로 공동토일렛은 넘쳐흐렀고, 서울시 외곽에는 배설물을 수거하는 개인 우마차가 시시때때로 골목길을 막고 있었다. 토일렛 청소부의 외침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왔다. 70년대 중반에도 서울 외곽지역의 높은 지역에는 청소차가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단 투기나 리어카 수거꾼에게 돈을 주고 처리하게 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商用)호텔이었던 반도호텔로 현재 을지로1가의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호텔로 수세식 토일렛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특히 조선호텔은 현재의 토일렛을 설치·사용했다. 또 한국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 등의 은행과 화신백화점, 미스코시백화점 현재 신세계백화점과 미도파백화점 같은 곳에서도 수세식 토일렛을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때 지어진 조선총독부건물이나 지방도청건물에는 수세식 토일렛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시절 서울역도 수세식 토일렛이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화제

가 되었다. 현대식 토일렛은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이 주둔 하면서 백화점, 빌딩, 호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보통의 사무실이나 상류층의 주택은 6·25동란과 9·28서울 수복 이후 수세식 토일렛이 새로운 건물재건에 의해 보급되었지만 경제적 여건상 보편화 되진 못하였고 보편화 된 것은 경제가 발전한 70년대 양변기가 일반화 되고 변소와 욕실 통합이루어지면서 욕실이 2평 이내로 면적이 감소(이영심, 1996) 특히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는 수세식토일렛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은 1977년대 부터였다. 1980년대에 지금과 같은 욕조, 세면기, 대변기가 함께한 바스 유닛(bath unit)형태의 공간이 토일렛이 되었다(이지영, 2002).



2.4 토일렛(toilet) 유형적 특성

현대 토일렛은 전실은 드레스 실(dressroom) 혹은 파우더 실(powderroom)이라는 이름의 공간이 동시에 설치된다. 이들 공간은 샤워나 목욕을 위한 탈의 및 갱의, 옷 보관, 세면, 얼굴 화장, 휴식을 위한 공간의 역할을 한다(김재희, 2003. 6).

건식 토일렛은 변기, 세면대와 욕조 혹은 샤워 부스에만 배수 시설을 연결한 토일렛이다. 시공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건식 토일렛은 습식 토일렛과 달리, 방수판과 벽판을 페인트칠이나 도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습식 토일렛을 진정한 의미의 건식 토일렛으로 개조할 경우, 공사가 커지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벽체와 바닥재를 공장에서 패지로 제작해 현장에서는 시공만 하는 시스템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하루, 이틀 정도에도 공사가 가능하다. 건식 욕실은 욕실 슬리퍼가 없어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바닥 난방을 위해 열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4.1 습식토일렛

습식토일렛은 바닥의 모든 공간에 물을 사용 할 수 있는 배수 시설이 갖추어진 동양적 정서가 담겨 있는 형태로 세균과 곰팡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형태이며, 몸을 토일렛이 아닌 토일렛 안 어디에서도 씻을 수 있다. 물 사용이 자유로우나 이로 인해 위생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습기가 많이 발생 하는 환경에 놓여있어 세균, 곰팡이 번식이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에 놓여 다칠 수 있는 문제점을 앓고 있다(<http://blog.naver.com/kjt2686/220522295833>).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흔하게 사용 하는 형태의 토일렛으로, 바닥에 배수 시설이 있어 물 사용이 용이한 상태로 되어 있는 토일렛으로 다양한 용도의 형태로 물을 사용 할 수 있다. 토일렛의 모든 부분에 물이 닿을 수 있어 물기와 습기에 약한 소재는 사용하기 어렵다. 물청소가 익숙한 습관, 입욕 문화 등으로 습식토일렛을 고수하는 경우도 많으며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용이한 환경을 제공 한다(<https://www.homify.co.kr/ideabooks/116745/vs>).

우리나라는 좌식 구조가 일반화 되었으나 서구화가 도입 되면서 주택 외부에 있던 변기가 주택 내부로 들어오는 습식 수세식토일렛으로 변모하였다. 본래 습식화 된 토일렛 공간은 물과 맞닿아 있어 습기와 곰팡이, 환기와 습도 조절에 신경 쓰는 등 사용자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적 문제가 있다. 아파트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간의 배치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토일렛 공간이 물을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분리되거나 가사용 다용도실은 부엌 옆으로 분리하여 배치함으로써 토일렛의 원천적인 기능에도 영향을 끼쳤다.

습식토일렛은 우선 좁은 공간에도 무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물을 사용해 청소를 해야지만 깨끗하다는 인식이 있어 습식토일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작은 토일렛은 크기에 맞춰 샤워 부스의 크기도 작아지고 사용하기 불편한 형태로 자칫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다. 이런 한 단점을 습식토일렛으로 간단하게 샤워기만 설치하여 넓어 보이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https://www.homify.co.kr/ideabooks/116745/vs>).



<그림 32> 습식토일렛

출처: <http://blog.naver.com/galaxy6064/2205069>, <http://blog.naver.com/hyesun6073/220399>



<그림 33> 습식토일렛

출처: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09&contents_id=97931



<그림 34> 습식토일렛

출처: <http://blog.naver.com/mirmir66/220402309726>

2.4.2 건식토일렛

건식토일렛은 습기가 없어 세균, 곰팡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의 토일렛으로 위생적인 면이 강하다. 물을 일정한 곳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물때가 낄 수 없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호텔 같은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어 인테리어 효과도 높다. 건식 토일렛은 습기가 없어 카펫, 러그, 원목 등 인테리어적 활용도가 높다. 소품을 이용한 자기만의 색깔 연출이 가능하며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 다칠 염려가 없다(<http://blog.naver.com/kjt2686/220522295833>).

건식토일렛 형태는 배수구를 분리시켜 물로 인한 습기와 위생문제 해결로 쾌적한 토일렛 환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지어지는 공간은 건식구조로서 탈바꿈 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습식토일렛은 습기와 곰팡이의 위생적 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바닥을 깨끗이 정리하고 카펫이나 러그를 깔아 인테리어적 활용도도 높다(김재희, 2003). 욕조에 샤워 커튼을 설치하여 바닥으로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습식구조에 대한 생각과 건식구조에 대한 고정관념은 거부감을 내재하고 있어 물을 사용해야 깨끗하다는 생각이 건식 토일렛을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건식화 된 토일렛은 더디게나마 도입되는 과정에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몇몇 토일렛 브랜드는 완전한 건식 형태가 아닌 습식과 건식의 상호 장점을 살린 거부감이 없는 절충형 토일렛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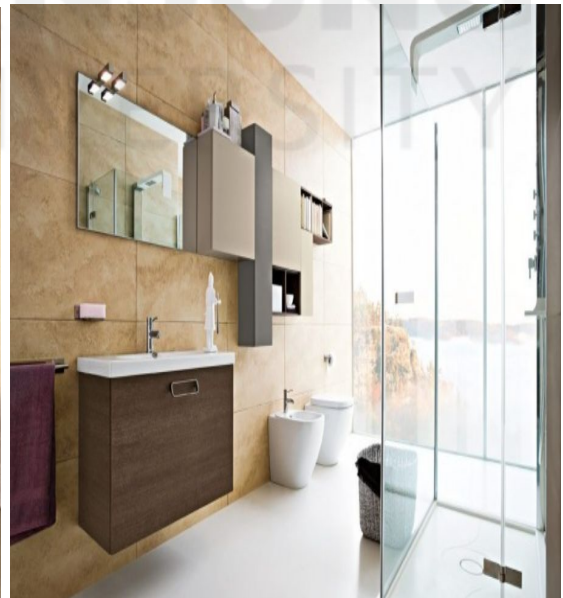
건식토일렛의 가장 큰 장점은 토일렛 안에 습기가 없이 쾌적하게 관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닥에 항상 물기가 있어 슬리퍼를 신어야 하는 습식토일렛과 다르게 맨발로 들어갈 수 있어 편하다. 또한 곰팡이,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위생적이며 제한 없이 가구와 소재를 사용할 수 있어 거실과 일관적인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이 토일렛은 차가운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나무나 패브릭 소재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토일렛 연출이 가능해졌다.

건식토일렛은 하나의 실로서 아늑하고 모든 실의 기능이 충족된 융합 개념의 공간으로 접근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림 35> 건식토일렛

출처: <http://cafe.naver.com/beautifulscene/2183>건식12



<그림 36> 건식토일렛

출처: <http://blog.naver.com/hyesun6073/220399100176>건식67

<표 2> 시공 과정에 따른 토일렛 구분

건식토일렛	습식토일렛
<p>시공 과정중 물을 사용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물을 제작하거나 건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경량 구조틀이나 OSB보드 목조 구조 틀 위에 방수석고보드를 하고 그 위에 타일시공 한다.</p>	<p>토일렛을 만들기 위해 벽돌로 구조를 설치하고 물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액체방수를 시공한다. 타일을 깔기 위해 사모래(모래와 시멘트와 적당량의 물)을 타설하고, 타일을 부착하는 등의 공사를 하는 시공법으로 물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다.</p>

출처: <http://blog.naver.com/kjt2686/220522295833>

<표 3>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토일렛 구분

건식토일렛	습식토일렛
<p>토일렛의 바닥에 배수구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생기구에서만 물이 배수가 가능하다. 바닥에 조립식 원목이나, 리그을 깔며, 샤워커튼을 달거나 파티션을 설치하여 욕조를 사용 하면 된다.</p>	<p>보편적인 토일렛으로 토일렛의 모든 공간에서 물 사용이 용이로우며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구조이다.</p>

출처: <http://blog.naver.com/kjt2686/220522295833>

2.4.3 절충형토일렛

절충형토일렛은 건식의 위생적인 면과 습식의 동양적 정서가 만나 장점을 살려 발전된 형태다. 절충식토일렛은 이용자의 기호에 따른 장점 요소를 접목시킨 것인데 토일렛 공간에서의 이용자의 기호라 함은 물이 없음에 대한 적용으로 위생적·생리적 공간이 절충이다. 우리나라의 습식 문화의 선호와 서구의 건식 문화의 공존은 불편한 경계점과 한계를 갖게 한다. 따라서 절충형토일렛의 수용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완전한 건식 구조의 토일렛에 대한 한계를 건식과 습식의 장점만을 모아 대체함으로써 이질적인 요소를 해결함에 있다. 이는 습식토일렛 공간의 쾌적함과 건식토일렛 공간의 정서가 동시에 반영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목욕을 위한 욕조와 샤워 시설을 분리하여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습식으로 만들고, 변기와 세면대 부분은 건식으로 꾸미는 것이다. 씻는 공간에서는 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간단히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맨발로 다닐 수 있는 편리함을 살린 것이다. (<https://www.homify.co.kr/ideabooks/116745/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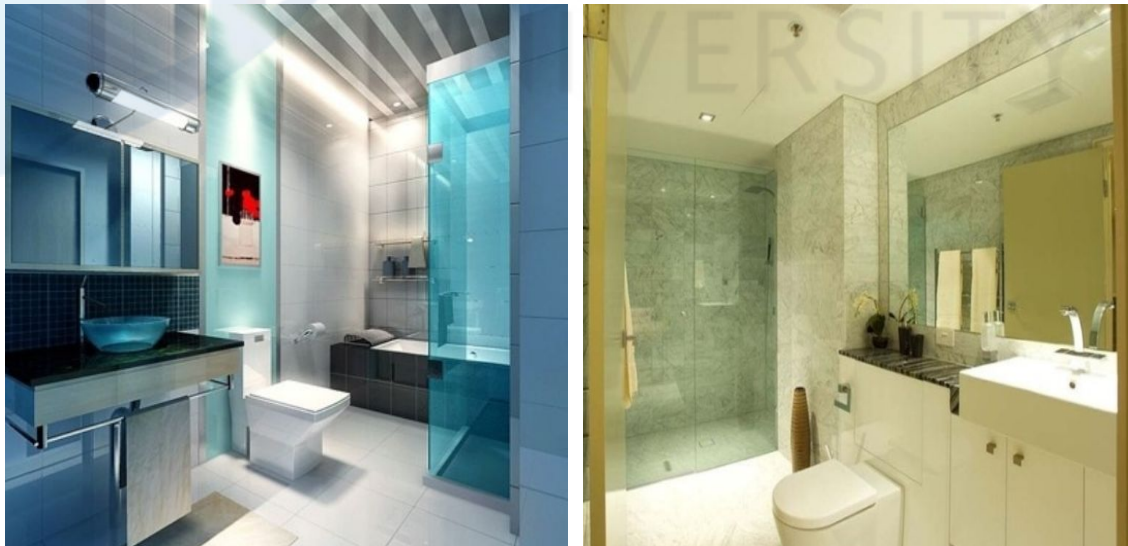
<그림 37> 절충형토일렛

출처: <http://blog.naver.com/arrogantyoong/220459036175>



<그림 38> 절충형토일렛

출처: http://blog.naver.com/daelim_bath/20194679296



<그림 39> 절충형토일렛

출처: <httpblog.naver.comlon102490144161310.png>

III. 근·현대 사회속의 토일렛 문화 트렌드

3.1 근대 사회속의 토일렛 개념의 변화

근·현대 토일렛 개발을 위한 연구 트렌드는 제일 먼저 수세식 역사의 시작인 영국의 런던에서 비롯된다. 중세에는 런던이 도시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복층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때의 수세식 토일렛이 보급되지 않던 시절로 2층 이상에서는 요강을 사용했다. 그때 유럽의 요강 ‘크로스 토루스(Cross Torso)’라는 의자형 토일렛을 사용 하였다. 또한 달리 대소변용으로 사용하는 토일렛이 있으며 의자식 토일렛에 내용물이 차면 처음에는 하수구나 외진 길거리에 처리 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며 내용물을 처리를 하는 것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창문 밖으로 투척하기 시작했다. 14세기 거리의 배설물과 심각한 냄새로 사회문제가 제기 되자 왕실의 해결책은 창밖으로 배설물을 투척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시켰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러한 창밖 배설물 투척이 문제는 영국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도시전역에서 배설물 투척으로 인해 도시의 위생상태는 최악에 달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다. 오늘날 신사 숙녀의 패션도 사실은 배설물의 창밖 투척에 따른 대책으로 고안됐다. 넘치는 배설물로 인해 여성들은 외출복을 입고 밖을 나갈 때 배설물이 옷자락에 묻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 굽 높은 구두로 ‘하이힐’의 원조가 되었다. 또한 공중토일렛이 없어 사람들은 노상방뇨를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모든 것을 가릴 수 있게 만든 옷이 ‘드레스’다. 망토와 챙이 넓은 모자는 창밖 배설물 투척으로부터 머리와 의복보호를 위해 고안 된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널리 이용되는 향수는 그 당시 똥오줌의 창 밖 투척에 따른 관점에서 봤을 때, 수많은 제조법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져 온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하나는 ‘루이 필립(louis philip, 1773~1850)왕, 그의 향수’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필립왕이 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있지는 않다. 그 제조법은 어떤 경우라도 ‘여섯 스푼 가득한 장물, 앰버그리스

(ambergris)와 시벳(Civet) 2개, 보리알, 약간의 사향, 2페니(penny) 무게의 설탕'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드를 모아서 장물에 담궜던 약간의 트래거캔스 고무와 함께 그것 들을 부어서 틀을 만든다. 1640년경 Gallantry 법에서는 때때로 몸 전체를 목욕하고, 손을 매일 씻고, 얼굴은 가능하면 자주 씻으며 머리는 아주 가끔 감는 것이 권고 되었다. 청년들은 둥글고 긴 조각들을 입는 것이 허용되었고, 심지어 가끔 신전에서 '치통의 상징'인 검은 석고를 입기도 했다(Richard Corson, 2003).

또한 배설물 투척이라는 위생의 암흑기의 토일렛 문화는 전염병을 낳아 17세기 전 유럽을 휩쓸어 전 유럽인들의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분노처리에 심각성을 느낀 엘리자베스(Elizabeth, 1533. 9.7~1603. 3. 24) 여왕은 대자(代子)였던 존 해링턴(John Harington, 1561~1612)이 수세식 토일렛을 고안해 냈다. 여왕이 총애를 얻기 위해 1596년에 수세식 토일렛을 처음으로 발명했다. 왕실의 풍자시인이었던 해링턴은 도색적인 이태리 소설을 유포시킨 죄로 궁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에이스작스의 변신(The Metmorposis of Ajax)>이라는 책을 통해 최초의 수세식 토일렛을 설명했다. 대중화에 실패한 이 수세식 토일렛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리치몬드 궁정'과 해링턴 자신의 집 단 두곳에만 설치됐다. 해링턴의 수세식 토일렛은 상당히 정교한 것이다. 그는 탱크의 물로 흘러보내도록 설계를 하여 분노를 씻어 내리게 했다. 이러한 배설물은 다시 분노통으로 흘러들게 했다. 장치마다 밸브를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달아 조절이 가능한 형태의 구조로 만들었다.



<그림 40> 세계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

출처: <http://www.ilbe.com/888045856>

그 후 파이프 모양을 달리해 만들어 물이 중간에 남아 있어 뚜껑 역할을 하도록 했다. 배설물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보완한 ‘밸브 클로셋’으로 불리어진 수세식 토일렛이 1775년 알렉산더 커밍(Alexander Cumming)에 의해 발명되었다. 이러한 이유에도 보편화 되지 못한 점은 수로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시위생 상태는 여전 했다. 그러던 중 19세기 중반에 영국에선 세 차례의 콜레라로 많은 사람이 아사하였다. 18·19세기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싹튼 시기로 도시 위생상태는 매우 심각해 있었다. 1860년대에 런던의 하수도 체계를 대폭 정비 하여 생활터전인 런던을 청결하게 하는 대안으로 시작했다. 이후 수세식 변기는 1872년 토머스 크래퍼(Thomas Crapper, 1837~1910) 1889년 보스텔에 의해 개량된 형태인 지금의 수세식 변기와 유사한 ‘위시다운’형 토일렛이 등장하였다.

수세식 토일렛의 등장은 중세 유럽의 도시화에 따른 도시 위생이 심각성을 느끼면서 시작되었다. 수세식의 원리는 배설물의 처리가 멀리 떨어진 강과 바다로 흘려보내게 된 구조로 수세식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다(이동범, 2000). 중세 유럽의 도시화와 인구집중화에 따른 배설물의 하천 투척은 사업화의 결과이지만 여기에서 비롯된 오염과 생태환경과 준립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전환과 방향을 요구한다. 수세식 토일렛의 탄생 역사이다(이동범,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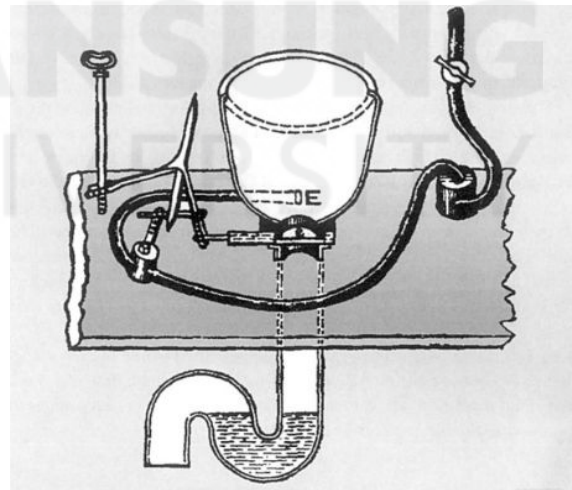
<그림 41> 윌리엄 호가스 삽화 요강비우기

출처: <http://ppss.kr/wp-content/uploads/2015/07/79-dung-rain.jpg>

<그림 41>는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 1697.11.10~1764. 10. 26)의 ‘그때 그시절의 삽화로 요강 비우는 모습이 삽화에 묘사 되어있다. 관공서의 경우도 토일렛이 없어 루브르 재판소의 건물 외측 벽은 창문 투척하는 모습 그대로 삽화에 묘사 되어 요강의 배설물로 온통 얼룩져 있다.

수세식 토일렛은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것은 1775년 영국의 시계공이며 수학자인 알렉산더 커밍(Alexander Cumming)이 작품으로, 이 수세식 토일렛은 헤링턴의 것을 따랐지만 커밍의 수세식 토일렛은 단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전에 만들어진 토일렛은 분뇨통이 직접, 연결되어 분뇨통에서 올라오는 배설물냄새를 허술한 뚜껑만이 차단하고 있어 악취는 그대로 위로 올라오는 구조였다. 파이프 오물의 악취를 막을만한 장치가 없었다. 헤링턴과 엘리자베스 여왕도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용변을 볼 수 없었다.

커밍은 자신이 제출한 특허 신청서에 ‘고여 있는 물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악취를 차단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42>알렉산더 커밍의 새로운 발명품

출처: 다니엘 푸러, 화장실의 작은역사, 2005. <http://www.ilbe.com/888045856>

1778년 유능한 기계공이었던 조지프 브라마(Joseph Bramah, 1784~1814)는 커밍의 토일렛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토일렛의 악취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 했다. 즉 물이 빠져 나감과 동시에 토일렛의 입구를 닫히게 하므로써 배설물 냄새가 올라오는 시간을 밸브를 달아 단축시켰다. 브라마의

토일렛은 좁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 때문에 브라마의 수세식 토일렛은 크게 성공했으며 1797년 6천개를 판매 했다. 이 수세식 변기는 1890년까지도 생산됐다.

커밍은 이 장치를 ‘취판(Chuppan)’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후 도시의 상하수도 보급과 더불어 이 수세식 토일렛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었으며, 1847년 하수 시설이 완성되면서 토일렛 역사의 전환을 이루는 것으로 초기의 수세식 토일렛 시설은 주로 연판제로 배관에 연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설치하는 위생공사를 연공사라고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토일렛은 점차 도기제로 바뀌었다(이동범, 2000). 19세기 말부터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수세식토일렛이 되었다. 가옥을 신축할 경우 침실 옆에 욕조와 세면기 화장대 등 모든 위생기구를 함께 설치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3.2 현대사회속의 토일렛 개념의 변화

토일렛은 급변하는 현대에 맞추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토일렛의 작용만을 위한 것도 아닌, 공간으로서 새로이 생기는 가치를 더해 합리적인 공간의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특히 과거의 불결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나누어졌던 면이 현재에는 실내공간에서 없어선 안 될 부분이 되었다. 근래의 모습으로 갖춰지면서 이를테면 미적 활동이나, 생활 업무와 드레스룸, 바스룸, 파우더룸, 쉬는 공간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이 융합되면서 토일렛 공간은 개인적인 면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건강, 휴식 등 100세 시대에 대한 관심, 꾸미며 아름답게 하는 바램 등 개인적인 것들을 같은 면으로 보면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지금 삶의 패턴의 변화로 토일렛 공간은 단순한 수전의 일치가 아닌 통합 된 형태로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함께 디지털이 보편화된 시대를 통해 스마트하고 편한 토일렛으로 기능이 추가되어 편리함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인식의 체계가 바뀌는 걸 통해 토일렛 공간도 다양한 형태로 재편 된다.

<표 4> 토일렛 공간 개념의 변화

과거	현재
생리위생의 기능	건강관리의 기능 강화, 휴식
목욕, 용변, 샤워 등	휴식공간으로서의 쾌적한 환경의 토일렛
미용, 화장의 기능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설치
화장, 탈의, 미용기능 등	토일렛공간과의 각실 통합
작업의 기능, 가사생활	가사작업의 기능 분리
저수조, 세탁, 김장 등	발코니, 보조주방, 세탁실 등장

출처: 김혜진, 2003.

토일렛 공간은 보편적으로 위생적인 면과 생리적인 기능을 포함한 다변화 적인 실로서 기능이 다양하다. 개인의 욕구가 담긴 기능이 추가와 함께 다양하게 습기와 공기청정을 위한 시설, 심리적·정서적 토일렛 공간의 조명의 컬러감과 조도를 구현 한다. 토일렛 공간의 기능항목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달 상황이나 개인적인 욕구 등도 포함한다.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TV시청, 마사지, 독서, 스마트폰 사용, 영화감상, 음악감상, 조망권 같은 항목들도 포함된다. 새롭게 추출되는 기능들은 이제 본래의 토일렛 공간 기능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토일렛 공간 자체의 특수성을 집어넣는 것이다.

<표 5> 토일렛 공간의 기능 항목

현재의 욕실공간의 기능	1. 세면	10. 거울보기
	2. 화장	11. 간단한 운동
	3. 손 씻기	12. 사우나
	4. 머리손질	13. 식물재배
	5. 목욕시 옷 보관	14. 일광욕
	6. 목욕시 탈·착의	15. 단수시 물 저장
	7. 샤워	16. 옷 갈아 입기
	8. 목욕	17. 물품보관
	9. 휴식	18. 간단한 놀이
새로 추출된 욕실공간의 기능	1. 프라이버시 보호	7. 신문보기
	2. 독서	8. 음악감상
	3. TV 시청	9. 비데
	4. 마사지	10. 전망 감상
	5. 세탁	11. 스마트폰 사용
	6. 모녀지간 놀이	12. 영화감상

출처: 김아름, 2005.

3.2.1 토일렛 공간의 흐름의 변화

흐름을 읽는 안목을 통해 현 세태를 반영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한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이다. 이러한 것은 현실 속에 그대로 녹아 난다 대중적인 시각으로 자리 잡아 잔상을 남긴다.

인간과 밀접한 공간과의 관계 변화는 토일렛 공간에서도 별다른 차이는 없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공간적인 느낌이 움직이는 과정의 관찰은 선택의 집중을 요한다. 이러한 공간의 흐름을 접목함에 있어 선택의 폭은 토일렛공간에 녹아 난다. 따라서 일반적인 현실과 흐름에 의해 얻어지는 욕구에 대한 분석은 토일렛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토일렛 공간에도 욕구에 대한 분석과 흐름을 파악하며 얻어진 변화로 인해 공간이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3.2.2 토일렛 공간의 문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생활양식 변화는 사회·문화적인요소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적인 변화를 야기 한다. 개개인의 욕구를 토일렛 공간에 투과 시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새로 발생하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많아지고 변화하는 생활양식을 충분히 숙지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빨리 시장에 적용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양식은 다양한 소재로 사용된다. 피로한 현대인의 욕구도 또는 그로인한 스트레스, 바쁜 시간, 전문화, 가치관과 세계관, 생활양식, 삶의 방식 라이프스타일 등의 적용이다. 이러한 연유로 토일렛 공간에 개개인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3.2.3 토일렛 문화의 디지털 화에 따른 사물인터넷과 연계

스마트한 환경이 조성 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는 IT기술은 사물인터넷과 연계한 토일렛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객의 욕구의 세심한 부분까

지 생각하는 스마트 토일렛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한 환경은 우리가 느끼지 못 하는 곳까지 이루어져 전반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상상 속에 있던 미래적인 생각이 현실과 일치하는 시점에 있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발달은 서비스업에서도 사물인터넷을 연계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뷰티업계에 알맞은 지능형 공간으로 구동되며 에스테틱 서비스 적인 측면에서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초고속망의 설치에 따른 발전의 결과로 스마트한 IT환경이 만든 부유로 인한 서비스 자동화(SA : Service Automation) 시스템이 설치된 서비스업이다. 각종 서비스 자동화(SA)기기가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4111&mobile&categoryId=720>).

공간의 제한 없는 접속은 ‘사물’과 ‘인터넷’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이설희, 2012). ‘사물’에 부착 된 스마트센서나 센서데이터를 통해 네트워크 매개체에 들어온 정보를 인터넷 망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탄생 시켰다. 장소 제약 이 없어진 접속 환경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일렛 거울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하여 피부 타입을 구분 하고 피부 관리를 토일렛 안에서 하며 그에 맞는 처방을 실행 할 수 있는 토일렛 공간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인의 공간 내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토일렛 바 공간은 관리사가 있는 곳과 서비스 자동화가 이루어져 무인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간단한 작동만으로도 토일렛 공간의 서비스를 원하는 욕구에 맞게 제공하게 한다. 토일렛은 사용자의 체질, 체형, 성향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 내용으로 토일렛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사물인터넷과 결합한 토일렛 공간의 사물과 인터넷의 연결을 통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간 곳곳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 되어 토일렛 바의 세면대도 사용자에게 맞게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되며, 세면대에 부착된 스마트센서에는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그날의 피부 상태를 데이터화 시켜 보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손을 씻는 짧은 시간을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목욕타입이 욕조에 프로그램화 되며, 세분화 된 목욕타입은 음성 인식만으로 상황에 맞는

타입을 인지하여 알맞은 목욕타입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토일렛에는 성향에 따른 알맞은 조명과 칼라 테라피 효과를 주어 심신을 안정 시켜주며, 자동 방향 시스템과 고객에 맞는 알맞은 향을 제공한다. 욕조의 수위, 수온, 수압 등을 맞춰 주며,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피톤치드 효과도 적용 되어 있어 안락함과 건강기능적인 요소를 함께 부여한다. <그림 43>와 <그림 44> 지능형 미래의 토일렛이다. 미래의 토일렛은 토일렛과 지능형 사물인터넷이 결합한 욕조가 있어 체형에 맞는 크기와 기능을 제공 하며 건강관리와 건강 상태를 체크 하는 기능 또한 있어 심리적, 정신적 해소와 힐링(healing) 공간으로 정신적인 건강을 도와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토일렛 환경은 이전보다 더욱 지능적인 모습을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스마트 환경과 사물인터넷은 우리의 삶과 함께할 요소라 사료 된다.



<그림 43> 미래 토일렛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erozen2su&logNo=140136592934>



<그림 44> 미래 토일렛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erozen2su&logNo=140136592934>

3.2.4 토일렛 공간의 독특한 개인의 특색 적용

토일렛 공간은 독특한 특색을 반영한다. 기본 설비나 타 환경과의 교류로 인한 환경적 요소, 뷰티적 요소, 기능적 요소, 정서적 요소가 갖는 각 실의 장점 결합을 통해 드레스 룸, 파우더 룸, 바스룸을 토일렛 공간에 개인의 특색을 담아 함께 적용한다. 연관성을 갖는 기능을 결합시키며 공간적 특색을 뷰티와 접목시켜 만들어 낸다. 토일렛 공간이 웰빙화와 더불어 정신·심리·건강 측면인 웰빙, 로하스, 웰니스를 넘어 백세시대를 맞이한 지금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신 개념을 도입하면서 개개인의 독특한 특색에 맞는 편리한 형태의 토일렛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개인의 특색을 토일렛 공간에 담아 독특함이 이루어진 토일렛 공간을 넘어 함께 변화 시키게 된다.

IV. 토일렛 바의 서비스 프로그램 제안연구

4.1 토일렛 바의 정의와 역할

4.1.1 토일렛 바의 정의

토일렛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 해소의 공간만 있는 경우도 있으나, 드레스 실(dressroom) 혹은 파우더 실(powderroom)이라는 이름의 공간이 동시에 설치된다. 이들 공간은 샤워나 목욕을 위한 탈의 및 갱의, 옷 보관, 세면, 얼굴 화장을 위한 공간의 역할을 하며, 대부분 부부침실과 연계되어 나타나며, 특히 여성들에게 유용한 공간이다(김재희, 2003). 이러한 공간에 상업적인 요소와 현대 트렌드를 접목한 것이 토일렛 바(Toilet Bar)이다.

토일렛 바의 정의는 토일렛의 기능만을 충족한 것이 아닌 또한 디지털이 융합되면서 토일렛 공간은 개인적인 욕구를 담는 미래지향적 Toilet Bar의 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웰빙, 로하스, 웰리스등, 건강, 휴식 등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멋진 100세 대비에 대한 관심과 외형과 내면을 꾸미며 아름답게 하는 행위 등 토일렛 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와 간절함 등을 토일렛에 적용하여 상업공간으로서 생리적 욕구 해결은 물론 미적 활동이나, 토일렛 본연의 역할 공간, 생활 업무와 드레스 룸, 바스 룸, 메이크업서비스와 에스테틱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쉬는 공간’과 ‘업무 공간’이 가능한 메이크업 바로서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브로우 바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 상업 공간이다.

전실공간만 있는 경우도 있으나, 드레스 실 혹은 파우더 실, 휴식의 공간과, 에스테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동시에 설치된다. 이들 공간은 샤워나 목욕을 위한 탈의 및 갱의, 옷 보관, 세면, 얼굴화장을 위한 공간의 역할을 하며 특히 여성들에게 유용한 공간이다(김재희, 2003). 이러한 공간에 상업적인 요소와 현대 트렌드를 접목한 것이 토일렛 바이다.

4.1.2 토일렛 바의 역할

토일렛 바는 생리적 욕구와 위생적, 기능적 요소를 포함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내재적 요소와 토일렛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시킨다. 하루 일과 중 제일 먼저 시작함과 동시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토일렛 공간에 상업 적인 요소를 넣어 출근하기 전, 퇴근 후,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쉴 수 있는 공간의 필요할 때, 업무공간의 필요할 때, 시간, 때, 장소에 맞게 알리거나 상품화 시키고, 직위, 직급, 신분 표현과, 가치관,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바가 필요할 때, 에스테틱 서비스를 받으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자신을 한 단계 높이는데 미를 표현 하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

행동과 기능적요소의 변화로 일어나는 모든 활동 또한 합일 시킨다. 즉, 배변욕구해소와 토일렛 바에서 이뤄지는 휴식과 정화의 기능, 습기와 공기청정, 에스테틱 샵 에서만 하던 피부 관리 서비스와 마사지서비스, 심미적 기능을 더한 불빛과 모든 활동이 끝난 후 외형적 마무리인 메이크업과 헤어 연출 및 내적·외형적 이미지메이킹을 포함한 코디 토일렛 바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 시킨 심미적, 기능적 역할이다. 다음 토일렛 공간의 기능항목에서는 전반적 기능의 항목들과 내재적 요소를 포함한 공간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TV시청, 마사지, 독서, 스마트폰 사용, 영화감상, 전망감상의 항목들 또한 토일렛 바의 역할로 포함 된다. 심리적, 건강적해소와 힐링(healing)의 공간이다. 다른 공간과의 기능의 결합과 새로운 환경의 교류와 영역 결합으로 인한 기능과 공간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에스테틱 서비스, 쉬는 공간, 업무 공간, 바스 룸, 드레스 룸이나 파우더 룸과 같은 심미적 연관성을 갖는 기능을 한 공간에 집어넣어 공간적 기호를 만들어 내어 다양한 문화와 함께 변화를 꾀하는 역할을 한다.

4.1.3 토일렛 바의 모티브 헬레나루빈스타인과 엘리자베스아덴

4.1.3.1 헬레나루빈스타인

헬레나루빈스타인은 세계최초의 뷰티살롱을 1902년 ‘하우스 오브 뷰티 발라제’를 오픈 하고 자신의 살던 나라에서 수입한 크림을 팔기 시작한다. 이후 2년 동안 피부학자, 생물학자 등 전문가들을 찾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문가 등으로부터 새로운 의학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 1908년 최고급 뷰티살롱을 영국에 오픈해 세계최초 피부 타입별(지성·중성·건성) 맞춤 화장품을 내놓는다. 그녀의 선택은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미국으로 이주해 뷰티살롱을 오픈 세계최초의 기록을 세우며 뷰티 역사를 다시 쓴다. ‘세계최초’라는 꼬리표를 헬레나루빈스타인은 달고 다닌다. 화장품 광고를 세계 최초로 하며 세계 최초의 워터 프루프 마스크라, 세계 최초의 보습 크림, 세계 최초의 백화점 매장, 세계 최초의 순수 비타민C크림, 세계 최초의 뷰티 클래스, 등 타이틀 또한 ‘세계 최초’가 따라다닌다. 많은 타이틀이 따라 붙기까지 헬레나루빈스타인은 최고의 독창성이나 자신만의 독특함을 앞세워 목표를 이룰 때까지 구하며, 최고로 발달된 형태의 기술과 기계장비 등을 통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던 그녀는 최고의 여성을 지향 했다.

화장품의 맞춤 시대를 연 헬레나루빈스타인은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화장품의 명품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역할은 그녀가 세운 빼놓을 수 없는 공적이다. 그녀가 갖고 있는 화장품과 마케팅 기법의 노하우축적은 근래에 등장한 맞춤식 화장품의 현대 스마트한 환경에 놓이면서 화장품업계에 등장한 시스템화 된 마케팅 전략이 진보적 역할이다. 최근 ‘포스C 프리미엄’라는 화장품을 발표한 헬레나루빈스타인브랜드에서 맞춤 개념을 다시 차용하고 있으며, 화장품 시장에 트렌드를 ‘맞춤’ 이라는 개인의 욕구를 담으면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뷰티전문가에 의해 과학적인 시스템을 맞춤이라는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헬레나루빈스타인은 작은 처방 기기 ‘D-코더’ 만들었다.

이 기기를 뷰티살롱에 설치해 고객의 피부타입별 맞춤 처방을 한 제품을

내 놓는다. 특히 비타민C의 농도까지도 뷰티살롱은 고객의 피부타입에 맞는 정보를 측정해 데이터화 한다. 세분화된 정보는 고객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린다. 이러한 제품은 날짜가 정확하게 기입되며 상온 6주, 냉장 보관 12주 기간이 정해져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해준다. 약품용기에 담은 제품은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그녀의 앞선 마케팅 전략이다.

헬레나루빈스타인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997년 헬레나루빈스타인브랜드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본점에 첫 입점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전국 백화점 11곳에 헬레나루빈스타인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45>피부 분석기

출처: <http://blog.daum.net/nebelstern1967/1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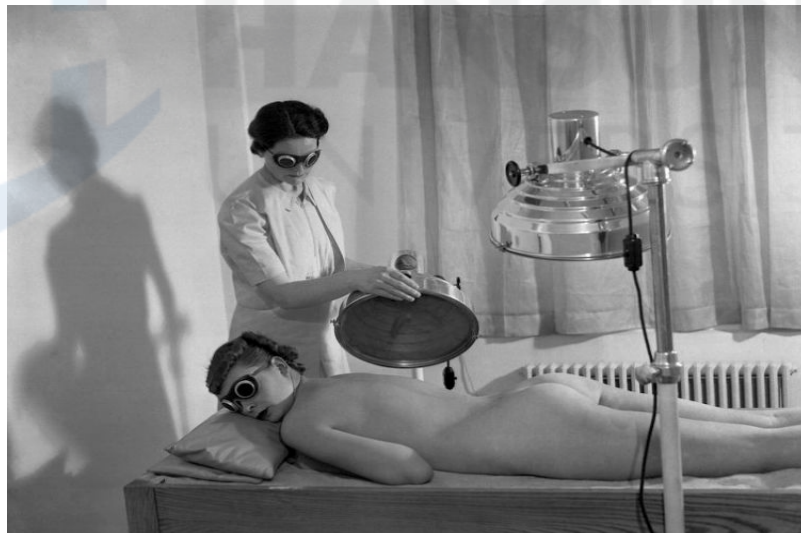
피부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 후드가 달린 피부관독 장치에 고객의 머리를 넣어 피부관독을 한다. 다음 손에 들고 있는 스위치를 눌러 작동시킨다. 고객의 확대된 피부는 결함을 전문가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된다.



<그림 46> 폴라로이드기에 의한 피부분석 1937년

출처: <http://blog.daum.net/nebelstern1967/1816>

피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뷰티전문가는 폴라로이드기를 이용해 결함을 체크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47> 자외선 장치

출처: <http://blog.daum.net/nebelstern1967/1816>

고객에게 자외선 기기는 건강에 좋은 보조 장비 중 하나이다. 살균효과와 미네랄이 풍부하며 일광욕을 할 수 있는 해변과 같은 효과를 주는 기기와 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림 48> 메이크업

출처: <http://blog.daum.net/nebelstern1967/1816>

메이크업은 좋은 인상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중요한 요소이다. 뷰티전문가의 교육에 의해 헬레나 루빈스타인 뷰티스쿨에서 고객의 이미지에 맞는 메이크업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다.



<그림 49> 관리모습

출처: <http://blog.daum.net/nebelstern1967/1816>

뷰티전문가는 고객의 등에 로션을 바르며 상하고 지친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한다.



<그림 50> 슬리밍 관리

출처: <http://blog.daum.net/nebelstern1967/1816>

고객은 체형을 측정하며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공격 개시 점을 결정 한다. 슬리밍 첫 단계는 정확한 체중과 체형, 무엇을 섭취하는지에 대한 체크이다. 뷰티전문가는 섭생과 운동을 겸한 조언과 정확한 측정을 기록 한 것을 전달한다. 이러한 요소는 슬리밍 관리에 필수다. 뷰티전문가의 도움은 정확한 감소를 체크할 수 있으며 관리사의 도움과 마사지를 통한 슬리밍의 관리는 필수 조건이다.



<그림 51>두피 관리

출처: <http://blog.daum.net/nebelstern1967/1816>

건강한 모발이나 두피의 건강을 위한 두피 관리기기이다. 스팀기 안에서 봉숭아 오일은 고객의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해 준다.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마사지를 시현하다. 이러한 두피 마사지는 건강한 두피와 건강한 모발을 얻을 수 있다(<http://blog.daum.net/nebelstern1967/1816>).



<그림 52> 태양 목욕

출처: <http://blog.daum.net/nebelstern1967/1816>

헬레나루빈스타인 프로그램의 태양 목욕이란 이름에 특수 케어이다. 고객은 모래테이블에 앉아 상큼한 과일과 야채주스를 마시고 있다.



<그림 53> 목욕관리

출처: <http://blog.daum.net/nebelstern1967/1816>

압축공기는 우유가 가득 찬 욕조에 거품을 생성하도록 도와준다. 고객의 타입별 맞춤 에센스를 듬뿍 머금은 마스크는 지친 피부에 영양과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특수 케어다.

새로운 감각을 지녔던 그녀는 성공을 거둔 후 1908년 런던, 1912년 파리, 1차 대전 중 미국으로 건너가 1915년 뉴욕살롱, 1917년에는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워싱턴, 시카고, 토론토까지 뷰티 살롱은 이어진다. 1910년 세계 최초로 피부타입을 구분해 타입별 화장품을 출시했고, 세계 최초의 화장품 광고를 비롯해서 최초의 뷰티 클래스 진행, 최초로 백화점 매장에 문을 열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등 뷰티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http://cafe.daum.net/SorabolBeautyArt/4meU/28?q>).

1935년 'Sanfrancisco Curran' 극장의 화장품 광고에서 체중감소를 위해 슬리밍 마사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광고 메시지가 나온다. “식이요법 없이 체중을 감소하는 참된 스웨디쉬 마사지를 통해 체형을 교정한다.” 1940년대 엘리자베스 아텐이나 헬레나 루빈스타인에 의해 스웨디쉬 마사지는 시카고 중심가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중심 지역 뷰티살롱에 정착하여 슬리밍마사지가 되었다(http://cool365.co.kr/bbs/board.php?bo_table=0104&wr_id=1&device=mobile).

스웨디쉬 마사지는 기본동작의 습득 후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동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마사지로, 이러한 점은 스포츠마사지에도 영향을 끼쳐 스웨디쉬마사지의 기본동작을 응용했다.

4.1.3.2 엘리자베스 아텐

1910년 뉴욕 5번가에 레드 도어가 출현했다. 엘리자베스 아텐의 뷰티살롱 출입문이다. 엘리자베스 아텐의 뷰티살롱은 그녀와 관련이 깊은 빨간 색을 내세웠다. 도로의 신호등에서 영감을 얻어 ‘레드 도어’가 탄생했다. 엘리자베스 이렇듯 아텐의 심볼이 영감은 도로위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빨간색의 갖는 의미는 빨간 불을 보고 도로에 멈춰 서듯 뷰티살롱의 문을 보고 앞에 멈춰 서듯 들어오라는 그녀의 내재적인 생각이 담겨있다.

뉴욕에서 첫 매장오픈은 회색일색인 뉴욕 빌딩숲 사이에서 눈길을 끌며 고

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엘리자베스 아텐의 레드 는 미스 엘리자베스 아텐의 레드 립스틱을 미국 전역의 여성들에게 선풍적으로 전파시켰다. 레드도어 뷰티살롱 오픈 이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첫 개발제품이다. 엘리자베스아텐은 여성의 인권운동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다. “왜 ‘레드’ 컬러일까?”라는 물음에 답을 준다. 엘리자베스 아텐은 열정적인 힘의 상징으로 강렬한 레드컬러를 선택 한 것이다. 1만 5000명의 여성들에게 레드 립스틱과 참정권을 운동가들에게 나눠주고 뉴욕 5번가 레드도어 뷰티살롱 앞을 그녀들과 함께 행진했다. 빨간 컬러는 미스아텐의 철학과 인권 운동가들과 인연으로 유니폼의 색깔이 되었으며 상징처럼 자리 잡아 여성 독립의 상징인 컬러가 되었다(<http://www.fnnews.com/news/201502231403240889>).

1940년대 세계 2차 대전이 있는 동안 미국 여성들은 사회 진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아텐은 여성들이 움직이기 시작 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 시작은 광고에 몬테수마 레드 립스틱을 여군 유니폼 레드컬러와 매치시켜 만들어 애국적인 요소를 광고에 넣었다. 엘리자베스 아텐의 열정이 상징인 레드컬러는 레드도어와 레드 립스틱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녀는 도전 정신이 강한 여성 이였다. 그녀는 뉴욕 5번가 살롱의 성공을 기반으로 1914년 워싱턴 D.C에 분점을 처음 오픈한다. 미스 아텐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유럽일주를 시작해 글로벌 회사로 입지를 다져 나간다. 그녀가 세운 역사적인 업적은 첫 분점 뷰티살롱이 오픈되던 그 해에 최초로 아이메이크업을 도입해 상품화 한다. 메이크업 제품과 스키�케어와 토털라인을 1916년에는 선보였다. 색조라인과 기초제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여행용 사이즈 제품을 이듬해에 선보인다. 그녀는 세계최초의 방문판매를 위한 뷰티세일즈 전문가를 양성한다.

미스 아텐은 할리우드 컬럼리스트 헤다 호퍼를 고용하고 개인 홍보담당자와 함께 회사에 대해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파리, 런던 등에 뷰티살롱을 1921년에 오픈하고, 미국 내 뷰티살롱 확장에도 힘써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등에도 오픈한다. 미스 아텐은 뷰티 분야 선구자로서 요가와 자외선 차단의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수분 섭취 등 내적인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알리는데 노력했다.

미스 아텐은 1946년 5월 6일 뷰티업계 선구자적 역할을 하면서 타임지 커버를 장식했다. 창립자 엘리자베스 아텐은 마케팅에 탁월한 안목을 가진 귀재였다. 창립자 엘리자베스 아텐의 브랜드를 최초로 극장 광고를 선보였다. 그녀는 크라이슬러 임페리얼과 협력하여 일을 진행한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킷을 디자이너 콜라보에디션 자동차와 함께 판매한다. 세계적인 뷰티기업으로 성장한 엘리자베스 아텐은 1966년 세계 17개국 지사와 40개의 뷰티 살롱을 오픈한 것이 미스아텐의 죽음까지의 기록이다. 또한 그녀는 고객이 자녀의 다친 무릎에 ‘에잇아워크림’을 발라준다. 8시간 후 상처가 나았다. 이와 같이 기적처럼 낱아서 ‘에잇아워크림’이란 이름이 되었다. 기적이 크림이란 별명을 지닌 ‘에잇아워크림’은 입술, 손, 얼굴, 발뒤꿈치 등 건조해서 갈라지고 튼 피부 어느 곳이나 적용 할 수 크림이다. 에드문드 힐러리경은 195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탐험가다. 그도 ‘에잇아워크림’을 사용하며 효과를 알렸다. 미스 아텐은 안티에이징 제품 개발에 하던 중 세라마이드의 효과에 관심을 집중한다. 엘리자베스아텐의 연구원들은 노화로부터 세라마이드가 피부의 노화를 늦추어지게 하는데 착안, 피부 층에 있는 동일한 성분의 세라마이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성분을 캡슐에 담아 외부로부터 산화를 막을 수 있는 화장품을 출시한다(<http://www.fnnews.com/news/201502231403240889>).

‘데일리 유스 리스토어링 세라마이드 캡슐 세럼’은 일회 사용량의 앰플이 담겨 있다. 외부공기와 차단 되어있는 캡슐에 담겨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방부제가 필요 없다. 탄력적인 피부를 만드는 세라마이드가 있어 영양과 수분을 보충해주고 동시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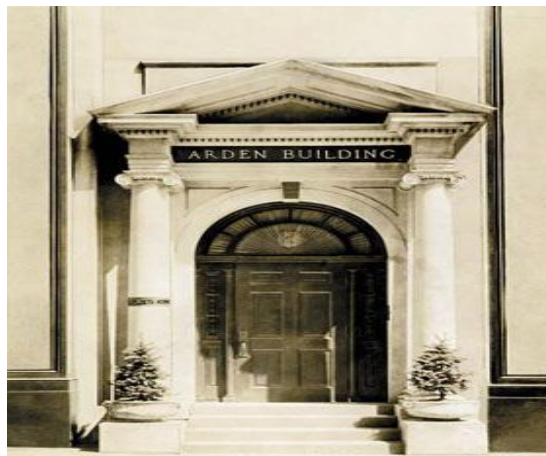
1989년 엘리자베스 아텐 심볼 ‘레드도어’ 향수를 출시한다. 이 향수는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엘리자베스아텐의 대표 향수가 되었다. 엘리자베스 아텐의 상징인 레드도어를 향수병디자인에 담아 지금에 형태로 디자인됐다. 2012년 이국적인 샌들우드(백단향), 꽃이 핀 후 더욱 향이 강해진 일랑일랑, 강렬한 레드 로즈 플로럴 계열 향수 패키지로 리뉴얼 됐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3/2014120302570.html).

엘리자베스 아텐의 정신의 담긴 브랜드 스토리 “세상의 모든 여성은 아

름답다. 여성은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다”. 레드립스틱과 참정권을 운동가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뉴욕 5번가 살롱 앞을 행진한 빨간 컬러는 여성 독립의 상징이 됐다. 매 순간 그녀의 열정이 담겨 있는 브랜드 스토리다. 바로 엘리자베스 아덴의 이야기이다. 어떠한 기구의 선언문도 아닌 여성 인권 운동가가 남긴 명언도 아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엘리자베스아덴의 창립자인 미스 아덴이 현재로부터 100년 전 선언한 기업 이념이며 제품에 담았던 철학이다.

<그림 54>번 그림은 토털 케어 브랜드로 문을 연 ‘레드도어 살롱’이다. 1910년 뉴욕 5번가에 미스 아덴이 첫 뷰티살롱이다. 1908년 뉴욕에 캐나다에서 간호사였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레하이가 온다. 뉴욕의 뷰티살롱에서 일하며 화장품 업계에 연관한 비즈니스를 익혀나간다. 그녀는 1910년 뉴욕 5번가에 레드도어를 단 자신의 뷰티살롱을 연다.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제목 ‘이녹 아덴(Enoch Arden)’에서 따와 뷰티살롱 브랜드 명칭을 ‘엘리자베스 아덴’으로 한다. 지금의 미국 대표적 화장품 기업 엘리자베스아덴의 시작점이다.

미스 엘리자베스 아덴은 여성 인권 운동을 지지 하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여성이 당당해 지고 아름다워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한 그녀는 아름답고 건강한 외모를 가꿔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한다.



<그림 54> 레드도어 살롱

출처: <http://m.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4>

1916년 화장품업계 최초‘메이크업 라인’과 색조 화장을 위한‘스킨케어 라인’을 하나로 묶은 토털 라인을 선보인다. 당시 화장품업계는 메이크업 라인, 스킨케어 라인을 분리 출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3/2014120302570.html)

그녀는 1917년 휴대할 수 있는 화장품 여행용과우치 화장품을 최초로 출시한다. 1921년 미스아텐은 파리, 런던, 니스에 뷰티살롱을 오픈 발 빠르게 세계적 코즈메틱 자리 매김 한다. 1934년에 미국 메인 주 여름 별장을 ‘메인 찬스 뷰티 스파’로 바꿔 지금의 스파 서비스를 선보인다. 피부 미용 프로그램에 스포츠 프로그램·다이어트·운동 등을 접목해 고객이 건강과 미용을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 17개국에 엘리자베스아텐지사 40여개인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했다.



<그림 55> 엘리자베스 아텐의 뷰티살롱

출처: <http://m.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4>

4.2 웬디의 콤피 토일렛바 서비스 프로그램 매뉴얼 서비스

4.2.1 페이스셜 서비스

페이스셜트리트먼트는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보습, 미백, 여드름, 주름, 탄력 등에 효과적인 관리를 해준다. 페이스셜트리트먼트를 시작하기 전에 체크 사항을 점검하고 피부상태와 건강상태 유·무를 파악한다. 평소의 피부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뷰티전문가와 관리 전 상담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확한 측정을 한 후 관리를 시행해야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페이스셜트리트먼트가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 되어 질 수 있도록 고객의 정확한 피부타입별 상태 판독이 필요하다.






페이스셜 프로그램은 ‘각질제거, 클렌징, 마사지, 마스크’의 기본 절차가 있다. 화장품과 관리기기와 관리도구 등을 이용할 때에도 모두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페이스셜트리트먼트를 시작하기 전 평소 가지고 있는 건강상태, 피부상태, 평소 피부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뷰티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담을 거치면서 적절한 페이스셜트리트먼트가 결정된다. 페이스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멜라닌 생성 억제를 하며 톤을, 맑게 해주는 미백프로그램과 피부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보습라인 피부 표면의 지속적인 각질 관리와 빠른 재생을 촉진 하는 재생라인,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안티에이징 라인, 항 노화 라인, 여드름에 관계된 원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여드름 라인, 얼굴근육을 풀어 주어 부드러운 안면근육을 관리해 주는 안면윤곽라인, 피부 표면의 각질층을 관리해 각질 주기를 정상화 시켜 주는 필링 라인 등이 있다.

4.2.1.1 클렌징(Cleansing) 단계, 15분

신진대사의 분비 작용과 피부대사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피부 표면의 노폐물과 오염물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정돈해 피부 청결과 유효한 성분의 침투를 돕는다. 클렌징 크림을 얼굴에 도포하고 위에서 아래로, 네 손가락 끝과

손바닥을 밀착하여 안에서 밖으로 부드럽게 닦아낸 후 해면으로 전체적으로 닦아내 유분기를 없애 준 후, 온습포를 이용하여 닦아낸다. 남아 있는 유분기는 젖은 화장솜을 이용하여 다시한번 닦아낸 뒤 유분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 후 토너를 사용해 피부를 정돈한다.

<표 6> 클렌징단계 15분

순서	클렌징 방법	이미지사진
1	눈과 입술에 포인트 메이크업용 리무버를 적신 솜을 얹어 놓은 후 적당 시간이 지나면 눈 화장을 한쪽씩 지워 준다.	
2	다른 쪽 눈과 입술을 면봉과 솜을 이용해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지워준다.	
3	얼굴전체에 클렌징크림을 도포 후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지워준다.	
4	해면을 사용하여 클렌징크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전체적으로 지워준다.	
5	온수포로 남은 잔여물까지 깨끗하게 지워준 후 토너와 로션으로 마무리 하고 피부결을 정돈해 준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4.2.1.2 딥클렌징(Dep Cleansing) 단계, 10분

피부의 탈락 주기를 정상화 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다. 노화된 표피 탈락을 도와주고 막힌 모공을 청결하게 도와 유효성분의 침투를 용이하게 한다. 새로운 피부의 재생에 자극을 준다. 맑은 피부를 기대할 수 있다. AHA 10% 이내의 제품을 팩 붓을 이용해 안면 피부 결 따라 부드럽게 발라 나아간다. 적당량을 도포한 뒤, 화장 솜을 사용해 양쪽 눈을 가리고 안면에 스티머를 7분간 분사 한다. 해면을 이용해 제품을 닦아내고 온습포를 이용해 피부의 잔여물을 정리한다. 토너를 화장 솜에 묻혀 피부 결을 정돈해 준다.



<그림 56> 스크럽을 이용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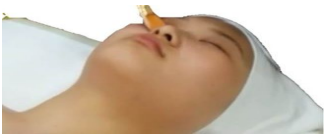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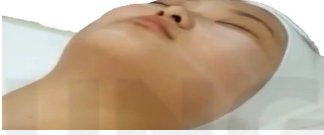

출처: <http://sart.tistory.com/m/post/1331>



<그림 57> 딥클렌징 관리

출처: <http://pi-bu.com/175>

<표 7> 딥클렌징 단계 10분

순서	딥클렌징 방법	이미지사진
1	얼굴전체에 딥클렌징 제품을 도포해 준다. 볼, 턱, 이마, 코 순으로 도포 한다.	
2	얼굴 전체에 도포가 되면 눈과 입에 젖은 솜을 얹고 각질이 밀리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린다.	
3	적당히 건조가 된 후 솜을 제거하고 손으로 딥클렌징 제를 살살 밀어 준 후 얼굴전체에 물러빙을 해준다.	
4	해면을 이용해 딥클렌징 제 잔여물을 제거해준다.	
5	온수포를 이용해 얼굴전체를 깨끗하게 닦아준 후 스킨으로 피부를 정돈해 주고 아이크림과 로션을 발라 준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4.2.1.3 마사지(Massage) 단계, 15분

마사지는 크림과 오일을 이용하여 목과 데콜테, 긴장 했던 안면 근육을 느슨하게 이완시키고 혈액이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노폐물과 불순물, 피지는 배출시키고 유효한 성분을 내부로 들어오게 돕는다. 반대방향으로 동작을 취하여 표정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떨어주기, 마찰하기, 두드리기, 집어주기 등과 같은 동작을 시행한다. 눈과 입을 둥글게, 볼은 아래에서 위로, 이마는 피부 방향으로 쓸어주는 기본 동작을 활용하였다.



<그림 58> 안면 마사지

출처: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lGLI&articleno

<표 8> 마사지 15분

순서	마사지 방법	이미지 사진
1	얼굴과 데콜테에 마사지 크림을 도포해 준다.	
2	데콜테를 왕복하여 가로로 쓸어준다. 데콜테를 부채 모양으로 바이브레이션해준다. 목 부위를 3등분하여 아래에서 위로 끌어 올린다.	
3	데콜테 동작 후 양 볼 바이브레이션을 해준 후 손바닥을 턱, 오른 볼, 왼 볼, 턱을 쓸어 올려 준다. 볼을 살짝 꼬집어 준다. 동작 후 온수포로 닦아주고 토너로 정리해 준다.	
4	동작이 마무리 된 후 해면으로 마사지크림을 제거해 준다.	
5	온수포로 깨끗하게 잔여물을 닦아 준다. 토너를 이용해 피부 결을 정돈해 준다.	

출처: 본 연구자의 작성표

4.2.1.4 마스크 (Mask) 단계, 20분

마스크는 피부 표면에 석고마스크로 막을 감싸듯 차폐하여 피부온도를 상승시켜 피부 확산을 돕는다. 확산된 피부에 영양 공급을 위한 에센스 아이크림을 골고루 펴 바르고, 팩 붓을 이용하여 마스크용 크림을 두껍게 바른다. 화장솜을 눈에 얹고 마른 거즈를 얹어 석고를 도포한다. 마스크가 응고되면 마스크를 떼어내고 해면과 온습포를 이용하여 피부를 정돈한 뒤 스킨으로 마무리한 뒤 피부를 측정 한다.






모델링 마스크는 규조토와 알지네이트가 지친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유효 성분이 피부에 영양분과 유·수분 발란스를 맞추어준다. 트러블 피부 진정에 효과적이며 영양과 수분 등을 공급해 준다.



<그림 59> 안면 마스크

출처: <http://leehoo5588.tistory.com/10>

<표 9> 마스크 20분

순서	마스크 방법	이미지 사진
1	아이크림을 충분히 발라 눈과 입가에 영양을 공급해준다. 영양 앰플을 도포해 준다. 얼굴전체에 마스크 크림을 두껍게 발라 준다. 숨을 눈에 얹어 준다.	
2	거즈를 얹고 석고를 전체적으로 턱밑까지 발라준다. 일정시간 기다린 후 해면과 수포로 정리해준다. 스킨, 아이크림, 로션 등을 도포해 준다.	
3	아이크림과 영양크림을 발라준 후 화장솜을 눈에 얹어 준다.	
4	얼굴에 전체적으로 잘 도포 될 수 있도록 눈 부위 먼저 고무마스크를 도포해 준다.	
5	얼굴에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턱밑까지 도포해 준 후 해면과 수포로 잔여물을 정리해준다. 스킨, 아이크림, 로션, 선크림 순으로 발라준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4.2.2 메이크업 서비스

메이크업은 ‘보완하다’, ‘제작하다’의 뜻으로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나이, 직업, 예의, 의상, 신분 등에 맞추어 자신의 외형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좋은 인상과 시술자의 목적에 맞는 이미지 연출에 도움을 준다(백고은, 2013). 시술자의 얼굴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장·단점을 파악 장점은 돋보이고 단점은 커버 하며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연출이 중요하다. 메이크업은 대상, 방법, 용도에 따라 세분화 하며 화장에 해당하는 뷰티 메이크업은 일상메이크업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분장메이크업은 스페셜 메이크업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아름다움의 본질은 사람의 감성이 자극되어 마음이 반응하는 것으로 감각적 요소 중 시각을 통해 근원적 체험을 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황홀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섹시하다, 매혹적이다, 예쁘다 등 다양한 단어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인류가 생기면서부터라 사료된다.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으나 고대부터 문헌에 나와 있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복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와 함께 신체보호기능과 신분의 표시기능을 하며 아름다움의 표현 기능을 갖고 있다. 메이크업을 통한 외부의 자외선이나 기후와 바람, 먼지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하는 기능을 한다.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의 결점과 장점을 극대화 시켜 만족도를 높여주고 이러한 연유로 자신감이 살아나 긍정적인 모습과 성격을 갖고 정신과 육체에 깃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자신이 이미지메이킹을 할 수 있다.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외향적이던 내향적이던 이러한 아름다움을 신체를 통해 발산하고 다양한 방법 찾고 표현한다. 자신의 주관과 가치를 표현하거나 지니고 있는 역할이나 목적에 맞게 전체 적인 이미지 변화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바램을 담아야 하며 그러한 아름다움이 외형이 아닌 마음까지 일치해야 함을 인식하고,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점검해 그것에 부응하는 미적 가치를 지닌 형을 창조하여 제안하며 만들어 간다.



<그림 60> 1. 메이크업샵의 내부

출처: <http://blog.daum.net/chochokkk/3842>



<그림 61> 2. 메이크업샵 내부

출처: http://www.thehappybride.co.kr/collection/view.htm?c_code=222677



<그림 62> 3. 메이크업샵 내부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rEPh&articleno=129

<표 10> 웬디의 콤피 토일렛 바 기본 프로그램 매뉴얼

순서	단계	효과	시간
1	클렌징	클렌징 크림을 얼굴에 도포,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노폐물과 불순물 등을 깨끗이 제거해 청결한 피부와 유효한 성분의 침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15분
2	딥클렌징	손상된 각질일부를 제거하고 유효성분 침투를 돕게 하며 피부가 새롭게 재생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HA 10% 이내의 제품을 사용한다.	10분
3	마사지	오일이나 크림을 이용하여 목과 가슴(데콜테), 안면의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며 혈액 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노폐물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피지는 배출시키며 유효한 성분의 피부의 흡수를 돕는다.	15분
4	마스크	석고마스크는 피부 표면의 막을 형성해 차폐 하므로써 피부의 온도를 상승시켜 피부의 확산을 돕는다. 확산으로 인해 유효성분과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다. 모델링 마스크는 구조토와 알지네이트가 지친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도와준다.	20분
5	메이크업	뷰티메이크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메이크업으로 자외선과 피부보호를 한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 하며 아름다움과 예의를 표현 한다.	30분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4.2.3 물을 이용한 하이드로테라피(Hydrotherapy)와 바디 랩(Body Wrap) 서비스

4.2.3.1 하이드로테라피(Hydrotherapy) 서비스 30분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된 형태로 미용과 건강한 삶을 위한 전문 트리트먼트를 물을 이용하는 형태로, 물을 사용하는 형태의 모든 기기와 전체적인 컨셉을 말한다(정혁진, 2004). 몸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감정들까지 녹여버리는 효과가 있는 하이드로 테라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근육긴장 완화와 급성 통증에 적용되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이드로테라피의 요법으로는 샤워 헤드 또는 호스로가 여러 개로 더운물과 찬물이 뿜어져 나오는 스프레이를 교대로 적용하는 스카치 호스, 여러 방향에서 물이 뿜어져 압력을 가하는 비쉬 샤워, 고급스팀 샤워 부스로 스팀 샤워와 물 분사가 가능한 스팀 테라피이다(임성민, 2010).

하이드로테라피 팁은 제트를 통하여 공기와 물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욕조 안에서 신체에 수압을 가하며, 아로마오일이나 씨워드 추출물을 팁에 풀어 이용하기도 하는데, 한정된 수압으로 지방 분해 효과와 피부근육 이완, 영양 상태 증진, 독소배출, 혈액순환 촉진, 림프구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림 63> 하이드로테라피 기기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0502109952660003



<그림 64> 하이드로테라피 관리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FEYv&articulo=12401967



<그림 65> 하이드로테라피 이미지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FEYv&articulo=12401967

4.2.3.2 바디 랩(Body Wrap) 서비스 30분

바디 랩 서비스는 온도를 높게 한 젖은 마천으로 땀 흡수가 잘 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로, 둘러싼 후 미국의 뮈폰사에서 처음 제조하는 전기 절연 재료로 얇은 막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이며, 기계적인 강도와 내열성이 있으면 담요 또는 마일라로 덮어 인체의 순환을 돕는 치료다(권창희, 2007). 랩은 간단하게 약 물에 담근 시트나 해수요법 마스크 또는 미네랄 머드 등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용액을 적신 밴드로 몸을 감싸주어 피부에 활력과 순환을 개선해 준다. 또한 체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차가운 타월로 고객이마를 싸야 한다. 관리는 두피 나 안면 마사지 또는 반사학 마사지를 포함할 수 있다. 고객은 랩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20분간 실시하게 된다.

바디 스크럽 또는 러쉬를 거친 천을 이용하여 피부의 각질층을 가볍게 문질러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각질관리의 한 종류이며 비쉬 샤워 또는 바디 마스크 단계에서 실시한다. 바디각질이 관리 되면서 보습과 활력을 준다. 바디 마스크는 탈락하지 못 한 피부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 성장하는 세포의 활성화를 초래하여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바디스크럽에 여러 제품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피하지방을 관리하고 건강하고 탄력 있는 바디라인의 슬리밍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있다.



<그림 66> 바디랩 서비스

출처: http://www.ifacemaker.com/board2_view.php?aq_type=worldwide&aq_id=1443

4.2.4 브로우바 서비스

눈썹은 눈 위에 위치하며 일센치 안팎으로 자란 털을 말한다. 눈썹모양은 눈썹 털의 성장에 따른 차이나,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인종과, 유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얼굴의 표정을 만들기도 하지만 눈썹의 가진 생리적 부분은 분명치 않다. 눈썹의 길이는 콧 망울을 잇는 연장선이 눈썹꼬리에 오면 된다. 눈썹 산 부분은 눈썹머리에서 눈썹길이의 삼분에 이 지점이 좋다.

눈썹꼬리는 콧망울 또는 눈 꼬리를 45도로 연결한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이며, 눈썹꼬리 끝은 눈썹머리 보다 내려가지 않게 한다(권창희, 2007).

눈썹은 그 형태에 따라 다른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며, 눈썹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눈썹의 길이, 눈썹 산의 위치, 미간의 길이, 눈썹의 술, 눈썹의 색상, 눈과 눈썹의 공간, 눈썹의 방향, 눈썹의 두께 등을 들 수 있다. 눈썹의 술과 색상이 열고 부드러우면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질으면 남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눈과 눈썹의 공간이 지나치게 좁으면 사납고 날카로운 인상으로 보이며 좁을수록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눈썹이 짧으면 어려보이는 느낌을 눈썹이 길면 길수록 성숙한 느낌이다. 상승형 눈썹은 여성적으로 보이며 눈썹의 방향에서 수평형 눈썹은 젊고 신선하게 보인다. 처진 눈썹은 온화하게 표현할 수 있다. 눈썹의 두께는 얇을수록 여성적이고 어른스러운 느낌, 눈썹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건강하고 남성적인 느낌이 난다. 미간폭이 좁으면 예리한 느낌이며 폭이 넓으면 온화한 느낌 뒤로 빼면 얼굴이 편평한 느낌이고 눈썹 산의 앞으로 들어오면 얼굴 폭이 좁아 보인다(안정려, 백수경, 이새벽, 이정민, 2013).

왁싱은 왁스를 눈썹에 바르고 눈썹과 함께 응고되면 눈썹을 붙잡고 있는 왁스를 함께 일시에 잡아당겨 모낭의 모근을 제거하는 원리이다. 왁스제품은 아몬드 오일, 파라핀, 송진, 파인애플 나무의 진액 등에서 그 원료를 추출 제조하며 아줄렌(Azulene)이나 카모마일(Chamomile)은 민감성 피부에 티트리 오일(Tra tree oil)은 부가적인 물질을 포함시켜 진정과 살균효과를 위해 제조된다(안정려, 백수경, 이새벽, 이정민, 2013). 왁싱 기술과 온도는 아름다운 눈썹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눈썹 가까이

에서 제거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드 왁스는 사용하기 전에 액체화시켜 디스크, 블록, 구슬, 작은 공의 형태로 이용되며, 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메이크업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 한다.



<그림 67> 2003년 베네피트 브로우바









출처: http://www.beautypl.co.kr/common/mgt/cms_view.asp?cate_id=732&rai=964



<그림 68> 베네피트 브로우바 매장모습

출처: http://www.beautypl.co.kr/common/mgt/cms_view.asp?cate_id=732&rai=964

<표 11> 눈썹 모양에 따른 눈썹이미지

종류	설명	이미지
기본형	기본형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일자형에 가까운 눈썹이다.	
아치형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으로 산이 완만한 눈썹이다.	
높은 아치형	눈썹 산이 부드럽고 완만하여 고상하고 품위 있는 느낌을 주는 눈썹이다.	
직선형	어리면서도 순수한 느낌이 일자형 눈썹으로 눈썹 산이 부드럽게 표현되며 눈썹 길이가 긴 형태의 눈썹이다.	
물결형	눈썹 산에서 꼬리로 움직이는 선이 물결치는 듯한 곡선을 이루는 눈썹으로 앞머리 쪽에 약간의 흐름이 있어 청순한 분위기가 나는 눈썹이다.	
각진 아치형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눈썹으로 화려하고 강하며 구조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고전적인 형태의 눈썹 중 하나이다.	
각진형	세련된 인상을 주는 눈썹으로 눈썹 산의 각이 선명하고 전체적인 형태가 직선적이며 진해 강인한 눈썹이다.	
둥근형	여성스럽고 온화한 느낌의 눈썹으로 동양적인 고전미인을 연상시키면 전체적으로 완만한 각도의 눈썹이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이데일리

<표 12> 브로우 왁싱 방법

순서	방법	이미지
1	얼굴형에 맞는 눈썹을 컨설팅 하여 눈썹 왁싱 전 왁싱 스틱으로 위치를 정한다.	
2	왁스를 소량 스틱에 묻혀 왁싱 할 부위에 얇게 펴바른다.	
3	왁스를 바른 부위에 부직포를 대고 결 방향으로 문지른 후 빠르게 떼어낸다.	
4	왁싱 후 트위저로 남은 잔모를 뽑아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	
5	얼굴형에 어울리는 눈썹을 눈썹 앞머리와 눈썹 산, 눈썹 끝을 맞추어 그려준다.	
6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눈썹 완성한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이데일리

4.2.5 스킨케어 서비스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에 따른 사회로의 진출이 가속화 되면서 소득 수준이 향상 되고 미용에 대한 관심도 증대 되어 있다. 이에 따른 미용 분야도 함께 세분화 되었다. 국제피부미용기구인 시데스코(CIDESCO)가 1946년에 만들어 졌고 2008년에 국가시험으로 바뀌면서 피부미용분야도 전문직종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킨케어의 첫 도입은 1971년 일본에서 피부 관리를 배운 최운학씨가 명동에 국내 최초 미가람 뷰티 살롱을 오픈하여 여드름 관리를 중점으로 하였다. 그 뒤 피부 관리에 관심이 급증 하였으며 1981년 서울 구로구 YMCA에서 정부시행의 여성 교육의 일환으로 여성 직업 개발부에서 피부 미용 업을 여성 전문직종으로 선택 국내에 도입 했다. 약 7개월간의 교육을 실시 피부관리사를 배출하였다.

예전의 피부 관리실은 얼굴관리 위주로 행해 졌으며 얼굴에 영양을 주고 흡수 시키는 관리가 대부분 이었다. 2000년대 이후의 급속히 달라졌으며 테크닉의 다양성과 전신관리가 주를 이뤘으며 이로 인한 토탈관리가 이루어져 고급화,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 대중화가 이루어 졌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례로 선택에 기로에 놓인 바쁜 현대인의 세분화 된 취향에 대한 고려한 관리와 고급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한 관리, 저렴한 가격대에 대중화된 관리실형태에서 파생된 많은 종류의 관리실이 존재하고 있다. 경락마사지, 발관리 전용, 아로마테라피, 남성피부용 등으로 세분화 되고 특징적이며 전문성을 강조한 다양한 종류의 관리실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관리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화장품선택과 유형에 맞는 다양한 테크닉을 선보이며 점차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피부 관리는 일반적으로 피부 미용에 있어 피부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며, 피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외형적 아름다움의 토대가 되며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지닌 피부로 가꾸게 해주는 기능적 의미가 담겨있다. 피부 관리실에서 시술하는 서비스 종목은 피부타입이나 고민에 따른 화장품 선정, 피부 관리 상담, 전신 피부 관리와 함께하는 스파서비스, 얼굴 피부 관리, 발 관리, 매니큐어(manicure), 패디큐어(pedicure), 눈썹다듬기, 두

피손질, 화장, 눈썹염색 탈모, 등이 해당 한다.

또한 물을 이용한 피부 관리, 피부 관리 시 갈바닉(galvanic), 리프팅(lifting)기, 적외선기기, 자외선기기, 석션(suction), 고주파기기, 전류기, 패러딕(paradic)전류기 등의 피부미용기기를 이용한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와 다양한 기술을 통한 전문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피부 관리는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 시키며 다양화된 문제를 해결하고 휴식을 위한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림 69> 스파서비스

출처: <http://blog.naver.com/hwang2890/220017853768>



<그림 70>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

4.2.5.1 스웨디쉬 마사지(Swedish Massage) 1시간 30분

스웨디쉬 마사지의 역사는 마사지 역사 중 가장 오래됐으며 의술의 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유럽의 생리학자나 의사에 의해 개발되어 발전된 문서화된 기록을 갖춘 최초의 마사지다. 스웨덴 사람인 피터링(Pehr Ling)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기본 마사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개발 시켰다.

내과 의사 존조지 메저(Johan Georg Mezger)는 마찰하기(Friction), 에플라지(Effleurage), 페트리사지(Petrissage 주무르기), 바이브레이션(Vibration 흔들기), 타포트먼트(Tapotment 경타법)이와 같은 프랑스식 언어를 스웨디쉬 마사지에 사용하여 보급하였다. 스웨디쉬 마사지는 스트레칭과 인도, 중국, 이집트와 같은 동양의 마사지방법까지 사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스웨덴의 의사인 피터 링이 19세기 초 자신의 류마티스를 치료하기 위해 생리학과 체조를 기본으로 하여 이집트, 중국, 인도, 유럽 등에서 전해 내려오던 마사지 기법들을 집대성해 의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에 기인한 시각과 관점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진행되며 심장을 중심으로 향하게 하여 혈액이 순환을 도우며 말초에서 중추로 부드럽게 진행된다. 피부미용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사지 중에 하나이며 근육계를 근거로 한다.

피부에 적절한 오일이나 크림을 바르고 손으로 피부표면을 흔들기, 주무르기, 쓰다듬고 문지르며 마찰하고 두드리기 등 다양한 수기법을 행하여 피부 내부의 신경계, 순환계, 근육계까지 영향을 폭넓게 미치는 마사지로 피부에 혈액순환, 근육강화, 탄력성부여, 긴장완화, 신경이완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갖는다.

<표 13> 스웨디쉬 마사지 1시간 30분

순서	스웨디쉬 마사지 방법	이미지사진
1	화장수로 팔을 소독해 준다. 오일을 도포해주고 양손으로 쓰다듬기 동작을 해준다.	
2	오른 손은 고객 손에 얹고 왼손은 상완을 팔꿈치에서 어깨 방향으로 펴올리기 동작을 해주며 마사지 한다.	
3	펴올리기 동작이 마무리 된 후 4지로 가지치기 해준다. 다시 쓰다듬기 동작을 해준다. 온수포로 닦아 주고 스킨을 바르고 마무리 해준다.	
4	화장수로 다리를 소독해 준 후 오일을 도포한다. 오일도포 후 전체적으로 쓰다듬기 동작을 해준다.	
5	다리를 90도로 세운 후 비복근을 위아래로 쓰다듬어 준다.	
6	양손으로 무릎을 돌려 준 후 상부 쓰다듬기를 한다. 삼등분으로 짜주기를 한 후 상부를 천천히 집어 준 후 쓰다듬기를 해준다. 온수포로 닦아주고 스킨으로 마무리 해준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4.2.5.2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

아로마는 즉 이로운 향기, 좋은 향기를 말한다. 허브스팀텐트는 일종의 아로마를 확산하는 방법으로 대사활동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 시킨다(진우창, 2010). 아로마요법이란 감정적, 영적차원, 정신, 신체적 치유와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전인적 치료요법이다. 즉 아로마는 식물에서 추출한 향이 나는 휘발성 에센셜 오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향이 마음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요법이다.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로 피부를 통한 향유 성분이 장기에 영향을 주며 휘발된 향은 후각신경을 통해 감각기관을 거쳐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아로마테라피는 우리 몸의 면역계를 보호해주고 마음에 생기를 주며 정서적으로 안정시킴으로서 정신적인 치료와 동시에 실질적인 치료법이다.



<그림 71> 아로마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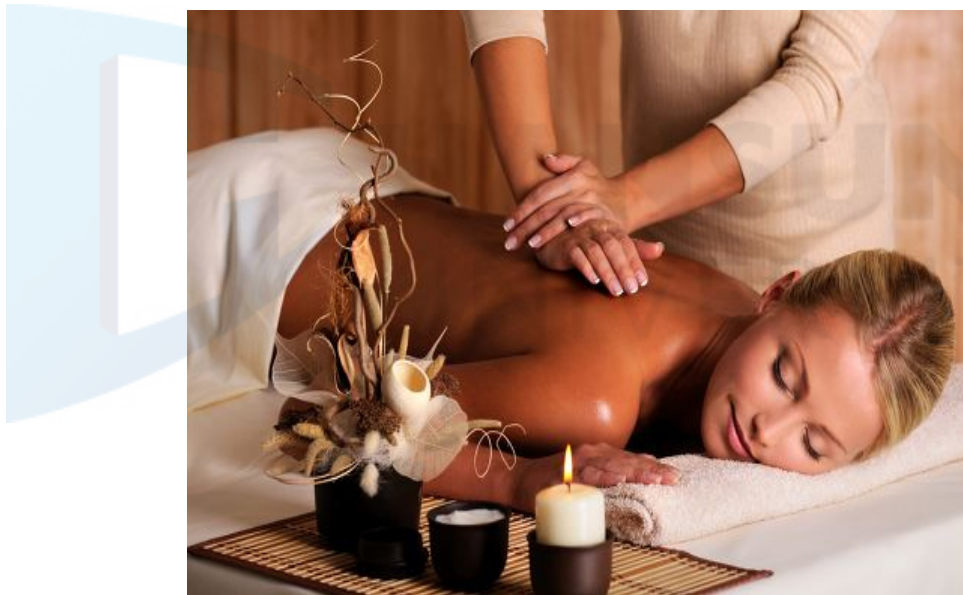
출처: <http://blog.naver.com/aromaloverspa/220524746725>

4.2.5.3 신경마사지(Neryepunkt massage) 1시간 30분

신경마사지는 신경배출점만 눌러 마사지를 시행하는 마사지법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쓰다듬기 동작을 하고, 신경 골격으로부터 나오는 위치에 멈추어 신경점을 누른다. 고객에게 편안함을 주고 일정한 신경점을 눌러 신경을 진정시키고 균형을 잡아주는 일종의 지압법이다.

4.2.5.4 경락마사지(Meridian) 1시간 30분



경락마사지는 한의학의 뿌리를 둔 기본 이론중 하나인 ‘경락학설’과 서양의 학의 ‘마사지 개념’에서 나온 ‘수기’ 결합하여 만들어진 마사지이다. 경락의 체표 반사점인 경혈부위를 마사지하고 인체의 에너지 흐름을 극대화한 것이다. 경락선 또는 경혈 점에 팔꿈치, 발, 무릎, 손가락, 손 등의 신체부위로 가압하고 문질러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기의 순환을 촉진시켜 인체의 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건조하고 노화된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하며 균형 있는 신체를 유지하게 한다. 또한 인체에 기의 흐름과 에너지를 원활하게 하는 마사지를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 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정신을 맑게 한다.



<그림 72> 등경락마사지

출처: <http://cool2436.tistory.com/252>

<표 14> 경락 마사지 1시간 30분

순서	마사지 방법	이미지사진
1	오일을 도포한다. 전체 쓸어 준 후 척부를 이용해 상부를 쓸어준다. 호구부위를 이용하여 퍼올리기를 해준다. 대퇴부를 비틀어 준다.	
2	다리를 세워 쓸어주기 동작 후 압을 준다. 발뒤꿈치를 짜주고 용천부위를 압 한다. 족 내외 과를 굴려준다. 전체 쓸어주기를 한다.	
3	양 주먹을 이용해서 귀 뒤에서부터 경추부위 전체를 쓸어준 후에 풍지를 지압한다.	
4	엄지와 시지를 귀 뒤에서부터 지압한다. 왼쪽 경추 옆을 머리와 어깨를 서로 밀어주며, 장악 추법으로 위아래를 풀어준다.	
5	오일 도포 후 전체 쓸어주고 중부를 장압하고, 폐경 쓸어주기를 한다. 양 경락 쓸어주기(하완, 상완, 경추) 퍼올리기 극천을 향해 쓸고 어깨를 장압 한다.	
6	옆구리 쓸기 모지복을 이용하여 극천을 압하고 담경을 쓸어준다. 노궁부위 압해주고 손동작 후 손목, 팔목을 돌려 준 후 전체 쓸어주기를 한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4.2.5.5 림프드레나쥐(Lymphdrainage) 30분

림프계는 혈관계와 정맥계에 해당하는 부속순환계이며 림프드레나쥐는 림프계에 근거한 림프관과 림프절 부위를 일정한 속도의 앞 리듬으로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정체되어 있는 림프와 조직액이 원활히 순환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마사지 기법이다. 림프순환이 촉진으로 조직액 배수가 촉진되며 림프계의 면역작용, 식균작용 등이 강화되어 인체 저항력 증진에 효과를 준다. 림프마사지는 부종, 모세혈관 확장증, 여드름, 습진 등 문제성 증상 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지방세포 내 축적물을 배설시키는데 탁월하며 셀룰라이트(cellulite)관리에 효과적이다.



<그림 73> 안면림프드레나쥐 이미지사진

출처: <http://cafe.naver.com/mineterrorlist2/695>



<그림 74> 안면림프드레나쥐 이미지사진

출처: <http://blog.naver.com/aromaloverspa/220524746725>

4.2.5.6 스포츠마사지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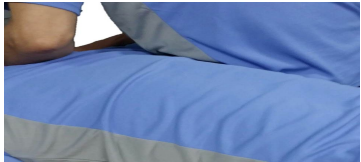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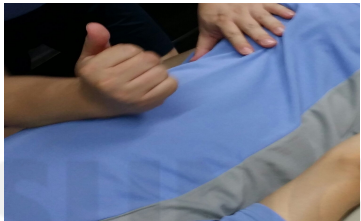


스포츠 마사지는 신체운동의 전·후에 마사지의 영향을 스포츠 마사지 전공 논문을 통해 공표 미국과 유럽·동양의 과학적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코치의 외상학과 지식을 폭넓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06년에 ‘스포츠마사지’라는 용어가 스포츠인의 관심으로 탄생했다. 스포츠 실시 전 선수가 운동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며, 근육의 긴장력을 유지시키거나 운동 후의 피로 회복의 효율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방법이다. 우리 몸의 근육은 몸무게의 40%인 방대한 기관이며 650여개의 근육은 우리의 몸을 빈틈없이 감싸고 있다. 보편적으로 근육이 수축 또는 강직이나 긴장은, 관절근육의 지속적으로 오그라드는 상태를 초래하여 통증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근육과 관절 등의 구축과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근육을 중심으로 자극을 가하는 기술로 기능이 감퇴된 곳은 흥분을 시켜주고 비정상적으로 기능이 경직 시 이완을 시켜 근육의 균형을 도와주며 만성두통이나 요통이 있을 때도 스포츠마사지는 실시하는 좋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한쪽으로 편중된 운동은 근육의 불균형 초래 요통과 근육통 등의 통증을 만든다. 아픔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마사지를 실시하여 통증의 완화, 경감 등의 효과가 있다.

<표 15> 스포츠마사지의 기본원칙

순서	명칭	효과
1	호흡	정신과 몸을 이완시키고 호흡과 압을 조절하며, 고객과 시술자의 호흡일치와 속도는 깊은 이완을 유도한다.
2	체중	단중을 중심으로 체중을 싣고 고객 부드러운 마사지 효과를 준다.
3	수직압	효율적인 마사지 효과와 고객과 시술자의 몸을 보호한다.
4	리듬	호흡에 맞춘 마사지의 속도는 고객의 깊은 이완을 유도한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표 16> 스포츠마사지 1시간

순서	마사지 방법	이미지사진
1	목라인을 (예풍, 풍지, 천주, 연수)압을 한다. 견갑거근을 모지로 압을 한다. 모지로 굴러주기를 한다.	
2	고개의 머리위에서 척부로 능형근을 압을 한다. 능형근을 척부로 압을 한다. 척부로 굴러주기를 한다.	
3	양수장으로 기립근을 압한다. 반대쪽도 기립근을 압한다. 위에 팔을 접어놓고 척부로 압을 한다. 기립근을 굴리면서 허리까지 내려와 압을 한다.	
4	수근으로 압을 한 후 모지와 척부로 압을 한다. 척부로 굴리면서 승모근까지 올라온다. 기립근을 압하며, 굴러준다.	
5	허벅지와 비복근을 지과면으로 압 한다. 수근, 모지로 번갈아 가면서 압을 해 준다. 전체를 수근으로 압한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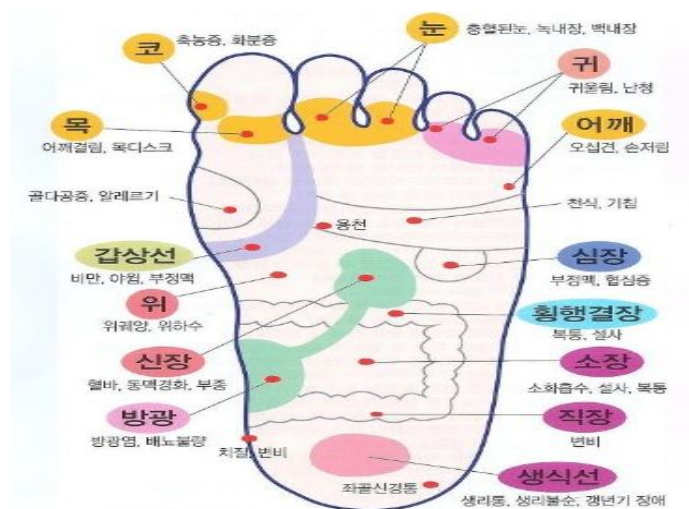
4.2.5.7 발마사지(Foot reflexology) 1시간

발마사지는 쳐주기, 비틀기, 누르기, 진동 및 흔들기, 밀기, 훑어주기, 돌리기, 당기기, 문지르기 등의 기본기법을 조합하여 다리, 발목 등의 반사부위를 자극한다. 20세기 초 이비인후과 의사인 W Fitzgerald가 척수를 거쳐 온 신경들이 자극에 의해 반사운동을 하고 손과 발에 있는 말초신경에서 상응하는 반사구 이론을 제시했다. 반사구 자극이 구심신경을 따라 척수후각으로 들어가고 자극은 대뇌에서 척수로 전달되며 교양 질은 대뇌로 전달되는 진행 정보의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다. 발마사지는 대섬유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켜 이완의 효과와 통증완화 효과도 있다.



<그림 75> 발관리 이미지






출처: <http://nonie.tistory.com/entry/>



<그림 76> 발의 혈자리

출처: <http://blog.naver.com/2695ab/220578843789>

<표 17> 발마사지 1시간

순서	마사지 방법	이미지사진
1	기초반사구를 압을 한 후 용천 부위를 3회 지압 하여 준다.	
2	복숭아뼈 양옆을 굴러준다.	
3	중족골 사이를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압박하며 올라간다.	
4	무릎을 굴려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내려온다.	
5	종아리 뒤를 펴올리기를 하여 쓰다듬으면서 내려온다.	
6	기본 반사구(신장, 수뇨관, 방광, 요도)를 자극하고 지압봉을 4초 씩 3번 지그시 눌러준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4.3 웬디의 콤피 토일렛 바 서비스 프로그램 매뉴얼 서비스

<표 18> 웬디의 콤피 토일렛 바 이용 시간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시간	서비스	대상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일렛 바 기본 서비스 이용 - 추가 이용시 같은 금액 적용 	자가 서비스 이용자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로마 반신욕 - 보이차 제공(다이어트, 변비, 성인병 예방, 위를 튼튼 하게 하며, 노화 지연, 숙취 해소, 향암 효과를 볼수 있다.)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로마 반신욕 - 하이드로테라피(물을 이용한 부력 및 마사지 증진 서비스) - 보이차 제공(다이어트, 변비, 성인병 예방, 위를 튼튼 하게 하며, 노화 지연, 숙취 해소, 향암 효과)를 볼수 있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바쁜 현대인을 위한 토일렛 바 대여 시간에 따른 자가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표 19> 웬디의 콤피 토일렛 바 스페셜 케어 서비스

특수 케어 관리 서비스			
서비스	소요시간	방법	효과
브로우바 서비스	30분	부드러운 왁스가 눈썹과 함께 굳어지면, 눈썹을 붙잡고 있는 왁스를 제거함으로써 일시에 눈썹을 잡아당겨 모낭의 모근을 제거한다.	전문가 손길에 의해 아름다운 눈썹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발마사지 (Foot reflexology)	1시간	돌리기, 당기기, 누르기, 진동, 흔들기, 밀기, 문지르기, 쳐주기 등 반사 반사부위 자극	반사구를 선택적으로 활성화 시켜 통증완화, 반사부위 치료이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표 20> 웬디의 콤피 토일렛 바 스페셜 케어 서비스

물을 이용한 특수 케어 관리 서비스			
서비스	소요시간	방법	효과
하이드로 테라피	30분	물을 사용하는 형태의 테라피로, 욕조속에 들어 있는 제트를 이용하여 물과 공기를 활발한 움직임을 이용하여 신체에 수압을 가하는 방식이다.	혈액순환 촉진, 긴장, 스트레스 해소효과, 지방 분해 효과, 피부 영양상태 증진, 림프구 순환, 근육 이완, 독소 배출을 촉진 효과가 있다.
바디 랩 (Body Wrap)	30분	바디 랩은 따뜻한 천을 이용해 신체를 둘러싼 후 먼 담요 또는 마일라로 덮는 치료이다.	혈액 순화를 개선하고 피부에 활력을 주며, 건조하고 노화된 각질 제거에 새로운 세포의 성장과 활성화, 바디라인의 슬리밍 효과가 있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표 21> 웬디의 콤피 건식 스페셜 케어 서비스

특수 관리 서비스			
시간	서비스	방법	효과
스포츠 마사지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라이 스킨 마사지 -신체 조직을 부드럽게 누르고, 당겨주고, 비트는 스티레징 동작 	근육과 관절에 효과적인 마사지법으로 몸 양쪽의 근육을 똑같이 균형을 맞춰 주며, 유연성을 좋게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유연성과 통증 완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
림프드레나지 (Lymphdrainage)	30분	림프관과 림프절 부위를 일정한 속도와 압력, 리듬으로 마사지	림프계의 면역작용, 식균 작용 등의 강화, 부종, 모세혈관 확장증, 인체의 저항력 증진, 여드름, 습진 등 문제성이 있는 피부증상 관리 효과적이며 지방세포 내 축적물, 노폐물과을 배설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셀룰라이트(cellulite)관리에 효과적이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표 22> 웬디의 콤피 습식 스페셜 케어 서비스

전신 스킨케어 서비스			
서비스	시간	방법	효과
스웨디쉬 마사지	1시간 30분	쓰다듬기(Effleurage), 주무르기(Petrissage), 마찰하기(Friction), 경타법(Tapotmen), 흔들기(Vibration) 사용한다.	관절의 기능과 운동 범위 향상, 근육의 긴장 이완, 혈액 순환을 촉진, 대사 순환 촉진, 노폐물 배출, 통증 경감, 심리적 스트레스와 긴장 경감 효과가 있다.
경락마사지(Meridian)	1시간 30분	경락의 체표 반사점인 경혈부위를 마사지한다. 경락선이나 경혈점에 팔꿈치, 발, 무릎, 손가락, 손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압을 가하고 문지르기를 하면서 경락을 자극해준다.	에너지 흐름 극대화, 기의 순환을 촉진,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건조하고 노화된 피부에 영양 공급, 균형 체형 유지, 질병 방어능력 강화, 인체 저항력이 증가한다.
신경마사지(Nervepunkt massage)	1시간 30분	쓰다듬기 동작 후 신경배출점만 눌러 시행하는 마사지법이다.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건조하고 노화된 피부에 영양 공급, 건강하고 균형 있는 체형 유지, 질병 방어능력 강화, 인체 저항력 증가한다.

출처: 본 연구자 작성표

스페셜 프로그램은 별도 요금 적용

V. 결 론

5.1 결론

본 연구는 고대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각국 문화권의 흥미로운 토일렛 문화사를 문화사적 고찰을 통해 토일렛의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줌으로써, 새로운 산업으로써 토일렛 바를 제시하여 동·서양의 고대에서부터 근·현대사적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토일렛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람들이 받게 될 서비스로서 다양한 욕구와 목적에 맞게 토일렛 바를 기존에 있는 미용서비스와 접목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안 하고 토일렛 바의 새로운 산업으로서 가치를 제안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일렛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한 결과를 살펴보면 역사 속에 나타난 중요한 단서를 토대로, 고대 토일렛은 기원전 5천년 경에 변욕 해결은 단순한 방법으로 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의 ‘변욕’ 해결은 자연적인 방법에서 비롯된 근원적 역사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과거의 유물을 통해 고고학의 개념을 둔 배경과 가시적인 변천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토일렛 문화를 갖췄던 문명국이었던 로마는 세계최대 규모의 수로시설인 클로아카막시마가 있어 수세식 토일렛이 가능 했으며 가옥은 물론 공중토일렛 254개나 존재했다. 로마인의 역사 속에 뿌리를 둔 여럿이 변욕을 해결하는 행위는 20세기까지도 네명 정도가 같이 사용하는 공중토일렛이 존재하였다. 로마인의 토일렛은 사회, 경제, 정치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 하는 대화의 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세는 불안정한 치안 상태에 있었으며 도시의 위생이 전체적으로 퇴보의 양상을 보였다. 그때에는 지붕 밑이나 곳간, 건물의 지하, 건물의 벽, 혹은 정원이 있었으며 길이나 안 마당이 이용 됐다.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화적 유형으로 변전하며 관심이 증대

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자였던 존 해링턴에 의해 수세식 좌변기가 등장하였다. 벨브를 변기에 설치해 지금의 수세식 변기의 기초가 되었다.

현대에는 토일렛 공간의 개념이 폭넓게 확장 하여 사회 발전을 통해 다양한 기술향상으로 아파트와 주택이 등장으로부터 토일렛 설비 또한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의 토일렛은 인간과 기능과의 조화를 이루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면서 컴퓨터와 토일렛을 결합 한 사물인터넷도 발전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문헌에 기록된 토일렛의 의미는 시대적, 문화적,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토일렛은 그 자체의 명칭만으로도 가치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토일렛은 토일렛 본연의 역할의 의미와 위생적인 면의 해결되면서 기능과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만족과 청결의 의미가 있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토일렛의 인식의 변화는 다양한 문화와 함께 변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과거의 불결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나누어졌던 면이 현재에는 실내공간에서 없어선 안 될 부분이 되었다. 근래의 모습으로 갖춰지면서 이를테면 미적 활동이나, 생활업무와 드레스 룸, 바스 룸, 쉬는 공간, 메이크업 공간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이 융합 되면서 토일렛 공간은 개인적인 면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건강, 휴식, 웰빙 등 100세 시대에 대한 관심, 꾸미며 아름답게 하는 바램 등 개인적인 것들을 같은 면으로 보면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지금 삶의 패턴의 변화로 토일렛 공간은 단순한 수전의 일치가 아닌 통합 된 형태로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이 보편화된 시대를 통해 더 합리적이고 편한 토일렛으로 기능이 추가 되 편리함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인식의 체계가 바뀌는 걸 통해 토일렛 공간도 미의 공간이며 휴식의 공간으로 다양한 형태로 재편 되었다.

넷째, 본 연구자의 토일렛 바의 서비스 프로그램 제안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토일렛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 해소의 공간만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절충형토일렛을 접목한 드레스실, 파우더 실, 쉬는 공간이 함께 설치되었다. 과거 근·현대사속에 나타난 토일렛 문화사를 문화사적 고찰을 통해 에스테틱 서비스를 제안하여 미용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헬레나 루빈스타

인과 엘리자베스 아덴의 뷰티살롱을 모티브로 한 웬디의 콤피 토일렛 바 서비스 프로그램은 에스테틱 프로그램으로 헬레나루빈스타인의 ‘하우스 오브 뷰티 발라제’의 뷰티 살롱처럼 에스테틱 서비스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같이 하며 엘리자베스 아덴의 여름별장을 개조한 ‘메인 찬스 뷰티 스파’의 스파 서비스에 착안 하였다.

제안한 에스테틱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토일렛 바 기본 프로그램 매뉴얼과 토일렛 바 이용 시간에 따른 프로그램 그리고 토일렛 바 스페셜 케어 서비스가 있으며 기본 프로그램 매뉴얼은 클렌징, 딥클렌징, 마사지, 마스크, 메이크업을 뷰티전문가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전문 서비스와 바쁜 현대인 들을 위해 출·퇴근 전·후, 파티에 가기 전, 여러 형태의 모임, 약속 장소로 갈 때, 잠시 토일렛 바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고객을 위해 토일렛 바를 이용하는 시간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자가 관리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토일렛 바 스페셜 케어 서비스가 있어 뷰티 전문가에 의해 브로우바 서비스, 하이드로테라피 서비스, 바디랩 서비스, 발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건식 스페셜 케어 서비스에는 스포츠마사지, 림프드레나주 서비스가 있어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습식 스페셜 케어 서비스에는 스웨디쉬 마사지, 경락마사지, 신경마사지가 있어 심신에 안정과 몸의 밸런스를 맞춰 주는 건강을 생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토일렛 바 안에서 에스테틱 서비스와 메이크업을 전문가에게 받고 자신이 외형에 대해 목적인 바를 시간, 때, 장소에 맞게 미를 알리거나 직위, 직급, 신분 표현과, 가치관, 이미지를 표현, 자신을 한 단계 높이는데 미를 표현 하는 장소로 토일렛 바를 메이크업 서비스와 에스테틱 서비스를 접목해보았다.

본 연구는 고대에서부터 근·현대사 속에 토일렛 문화사를 문화사적으로 고찰해보고 에스테틱 서비스를 알아봄으로써 토일렛 바에 알맞은 서비스라고 사료되는 서비스를 주로 하되, 방법이나 내용면에서 응용하였다. 본 연구자의 토일렛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삶과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토일렛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며 현재의 토일렛은 한 단계 발전된 인간과 기능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가기 전 간단히 토일렛을 이용 할 수 있

는 공간이 필요로 인해 본연에 토일렛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씻을 수 있으면서 메이크업과 에스테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할 공간을 제안 하였다. 토일렛이란 공간에 토일렛 바라는 개념을 제시해 90년대 초 헬레나 루빈스타인 과 엘리자베스 아텐의 뷰티살롱을 모티브로한 토일렛 바 에스테틱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안 하였다.

5.2 제언

인류가 시작된 이래 시대와 민족, 지역을 넘어서 고대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토일렛은 발전과 후퇴를 통해 지금의 토일렛 문화가 생겨났으며, 새로운 토일렛 바에 대한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토일렛 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스테틱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고대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사를 문화사적 고찰을 통해 토일렛의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주고 토일렛 바에 대한 연구로서 첫 출발점에서 후속 연구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고 다변화된 환경과 가치관으로부터 토일렛 바 서비스 에스테틱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또한 디지털 산업 발달로 사물 인터넷과 연계한 정보의 융합과 복합을 통한 통합된 형태의 토일렛 바를 제시해 좀 더 다채로운 토일렛 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후속 연구진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에스테틱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권창희. (2007). 『한국과 일본,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화장품 브랜드 스퀘 프로그램 연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
- 김광언. (2002). 『동아시아의 뒷간』 . 민속원. pp.9~15.
- 김아름. (2005). 『미래욕실 계획을 위한 소비자 요구분석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29.
- 김아름. (2005). 『미래욕실 계획을 위한 소비자 요구분석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9.
- 김재희. (2003). 『국내 공동주택 화장실의 변천과 방향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연구. p.11.
- 김혜진. (2003).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아파트 욕실 디자인 연구』 .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7.
- 다니엘푸러. 선우미정 옮김. (2005). 『화장실의 작은역사』 . 도서출판 들녘 pp.11-25, 41-72, 80-87.
- 박승조. (1997). 『박교수의 변소이야기』 . 신광문화사 pp.135~145.
- 백고은. (2013). 『얼굴이미지에 따른 수정메이크업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14.
- 백승우. (2003).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전략으로서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33-34, 39-40.
- 안정려, 백수경, 이새벽, 이정민. (2013). 아이브로우 확장에 관한 고찰과 아이브로우 바의 현황 연구 『한국미용예술학회지』 , 7(1), 5

- 야콥 블루메, 박정미 옮김. (1999). 『화장실의 역사』. 도서출판 이룸.
pp.52-72.
- 이동범. (2000). 『자연을 꿈꾸는 뒷간』. 도서출판 들녘. pp56-70
- 이민정. (2000). 『욕실변화에 따른 아파트 공간계획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2-25.
- 이상정. (2012). 『호모토일렛』. 이지출판 p.88, 90, 102, 106, 135, 151
pp.116-117,
- 이설희. (2012). 『공간의 비(非)물질화 관념에 기초한 욕실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메타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 석사학위 논문. p.48, 60.
- 이영심. (1996). 『거주자가 요구하는 아파트의 욕실』.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14-15.
- 이지영. (2002). 『주거욕실의 다양화와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pp.39-44.
- 이지혜. (2002). 『주거 내 위생공간과 주변공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
- 이화영. (2009).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화장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p.18.
- 임성민. (2010). 『스파 유형분류에 따른 스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9~32.
- 정혁진. (2004). 『호텔 스파 프로그램 비교 연구』 : 한국, 오스트리아, 태국의 호텔 스파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 진우창. (2010). 『뷰티산업 전략적 발전모델의 실내 공간 계획』. 한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85-86.

하순봉. (2005). 『특급 똥 이야기』 . 중앙출판사. pp.117-119.
blog.naver.com/4urhaus?Redirect=Log&logNo=120164748051
<https://www.homify.co.kr/ideabooks/116745/vs>
<http://cafe.naver.com/beautifulscene/2183>
<http://blog.naver.com/hyesun6073/220399100176>
<http://blog.naver.com/galaxy6064/220506940489>
<http://blog.naver.com/mirmir66/220402309726>
<http://blog.naver.com/arrogantyoong/220459036175>
http://blog.naver.com/daelim_bath/20194679296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GnZ5&artcleno=5172523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GnZ5&artcleno=5172523
<http://encyclopediaurantia.org/images/ng041.jpg>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Ystt&artcleno=57#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DWhQ&CATEGORYID=563492&dispkind=B2201

2. 국외문헌

Richard Corson. 2003). *Fashions in Makeup: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Lond0n: Peter Owen.

ABSTRACT

The research proposal for toilet bar service through historical site of
toilet culture

Hong, Hee-Jeong
Major in Beauty Esthetic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chieved a transition in the recognition of the toilet by a historical discussion on toilet cultures of various countries and examined toilets in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in the east and wes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oilet cultures have changed according to various needs and purposes based on the toilet from the ancient times through to modern ti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rough interchange and intersection among various countries, the toilet cultur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what they are now with the flow of the times and cultural impacts.

The toilet is not simply a space for defecation but it includes overall aspects such as beauty, society, economics, religion and politics through the process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anges, and at the

origin of mankind, toilet culture emerged by human needs, and in the ancient Rome, the most advanced form of public toilet existed.

In the Middle Ages, the toilet generally had been through the phase of regression due to the religious and political reasons, and hygiene in the cities, too, caused a lot of problems. Through inquiries into books, preceding papers, reports, online materials and literature, it was found that a flush toilet appeared first as John Harrington, a godson of Queen Elizabeth, who recognized these problems, devised a flush toilet by Her order and that the toilet culture reached the present form, repeating progressions and regressions.

In modern times, the concept of the toilet space is expanding widely and various technologies and toilet facilities have been developed as well. Attempts to harmonize men with functions are appearing in the toilet at the present time. In addition, it was also noted that the Internet of Things, grafting the computer functions to the toilet i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with the acceleration of digitalization. It was found that the meaning of the toilet recorded in the literature differs a little depending on the period, culture and region. It is noted that the toilet is a scale that can evaluate the level of the value just with the name itself. To modern men, the toilet is recognized as a space for satisfaction of physical needs and living, along with aesthetic function, the function of defecation and the meaning of cleanliness.

Especially, the toilet had been detached from the main living space because it was considered unclean in the past, but at the present time, it has become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interior space. As it was taking a form as it is now, its functions came to include for example, aesthetic activity, living activity, dress room, bathroom and resting space. In addition, with the convergence with digital technology, the toilet space can provide personalized functions. As all people see the same side with an interest in health and rest at the age of centenarians and a wish for

dress up, make-up and beauty, they have become natural. Now, with changes in the life pattern, the toilet space is getting settled deep in life, instead of simple coincidence. Convenience has been possible through the age of widespread digital technologies, in which functions have been added to a smarter and more convenient toilet. Through this paradigm shift, the toilet space is reorganized in various forms.

As above, through a discussion on the cultural history of the toilet, it was noted that at the present time, the toilet is developed one step further and in the process in which men and functions are becoming in harmony.

As a result of the researcher's inquiry into the toilet, it was found that there have been transitions in the recognition of the toilet for mentally and physically healthy life and according to rapidly changing trends, and the toilet at the present time is in the process of harmonization between men and functions, developed one step further. With the need of a space that can be used before going to work in the morning or before going to an appointment after work, this study presented a space that the user could use in order to satisfy physiological needs, wash, do make up and receive an aesthetic service.

This study presented a toilet bar as a service to be provided for contemporary men, grafting that to the beauty service for various needs and purposes and proposed a toilet bar aesthetic service program with Helena Rubinstein and Elizabeth Arden beauty salons in the early 1900s as motifs using the toilet space.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the toilet bar-related industries will be continuously developed, and this study proposed an example by the beauty aesthetic service.

Key words: Toilet bar, Toilet culture, Beauty service, Beauty salon, Beauty aesthetic, Beauty, Toilet